

굿모닝인천

JULY 2020
INCHEON MONTHLY MAGAZINE
VOL.319

07

민선 7기 2주년 특집호

INCHEON MONTHLY MAGAZINE

굿모닝인천

2020.07 / JULY

인천앓돌은 공유와 공감으로
활짝 열린 시민의 정원이다.
2020년 오늘.

© 사진 류창현



© 사진 인천시 기록관

인천앓돌 자라는 긴 시간
주차장으로 이용됐다.
1998-2000년 추정.

꿈이 자라는 시민의 ‘딸’

벽을 허물고,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잔디를 입혔다. 시청 앞 광장이 닫힌 공간에서 ‘열린 공간’으로 피어났다. 1985년, 허허벌판이던 구월동 한복판에 시청사가 들어섰다. 행사장에서 주차장으로, 세월 따라 광장도 변화를 겪었다. 그리고 오늘, 시민이 채워가는 ‘인천앓돌’로 새롭게 태어났다.

2018년 7월 1일, 민선 7기 인천시는 ‘300만 인천 시민이 시장’이라는 명제를 세상에 던졌다. ‘인천앓돌’은 민선 7기 1호 사업이다.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을 향해 달려온 시간. 지난 2년보다 다가올 2년, 그리고 내일 ‘THE 좋은 INCHEON’이 열린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장

07

JULY 2020
Vol. 319

발행처
인천광역시

발행일
2020년 6월 30일

발행인
인천광역시장

인쇄인
신봉훈(소통협력관)

편집인
백상현(소통기획담당관)

총괄편집국장
김진국

편집장
정경숙

편집위원
김윤경

사진
김성환·류창현·최준근

디자인·제작
웨스트코(주)

행정간행물 등록번호
54-6280000-000080-06



읽어주는 굿모닝인천
음성 지원 이북 바로가기



<굿모닝인천>은 웹진(www.incheon.go.kr/goodmorning), 인터넷 서점의 전자책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책도 발행하고 있습니다. 본지의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 표시·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진, 일러스트, 만화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일부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인천광역시의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굿모닝인천>은 무료로 배포합니다.

구독, 주소 변경 및 해지 문의 인천광역시 소통기획담당관실 032-440-8306

CONTENTS

- 04 인천 미소
코로나19를 피하는 방법 外
- 06 민선 7기 2주년
성과와 미래 / 시민 설문 조사 / 시민 인터뷰
- 20 코로나 시대
인천 섬 여행
- 26 인천 VS 세계 도시
④ 인천 중앙공원 VS 싱가포르 파크 커넥터
- 30 인천 명문교를 찾아서
② 광성고등학교
- 34 정책 만화
② 민선 7기 2주년
- 36 시민 시장
수도권 매립지 영향권 지역 토박이
- 38 내가 사랑하는 인천
인천대학교 이사장 최용규
- 40 문화 캘린더
로멘티카아르떼 ‘신바람 집시 재즈’ 外
- 42 이미지 뉴스
민선 7기 2주년
- 44 시정 뉴스
온라인으로 ‘인천 시민시장 대토론회’ 개최 外
- 48 의회 뉴스
코로나19 의료진 및 관계 기관 격려 방문 外
- 50 드로잉 인천
홍예문
- 52 인포 박스
토론 Talk Talk, 당신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外
- 56 인천 야화
산 넘고 물 건너, 무네미 外
- 57 仁生 사진관
불안과 용기, 그 사이
- 58 인천의 아침
계양산과 민선 7기 2주년
- 59 몽(夢)땅 인천 II
부평구 산곡동 백마극장

보고 싶다
<굿모닝인천>

듣고 싶다
'시민 목소리'

인천미소

—

인천시 미디어

인천시 인터넷방송 tv.incheon.go.kr

인천시 인터넷신문 'i-View' enews.incheon.go.kr

—

인천시 SNS

검색창에 **인천** 을 입력하세요.

- www.facebook.com/incheon.gov
- blog.incheon.kr
- www.youtube.com/user/icncityhall
- twitter.com/incheon_gov
- story.kakao.com/ch/incheoncity
- '인천시 미디어'
- www.instagram.com/incheon_gov
- www.weibo.com/incheon

코로나19를 피하는 방법

코로나19가 아직도 현재진행형입니다. 모든 국민이 생활 속 거리 두기에 동참하고 있지만, 때로는 어쩔 수 없이 식당이나 카페를 방문해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럴 때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밀폐되지 않은 야외 모임 장소를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두의 노력으로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길 소망합니다.

— 이정하 중구 축항대로

숨은 인천, 숨은 사람들의 이야기

'살기 좋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의 중심은 시민, 곧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사람 중심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는 인천시의 다양한 노력을 알려 시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어떨까요? 또 잘 알려지지 않은 공동체나 동아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인천과 시민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 김지영 미추홀구 경원대로

은빛 청춘을 응원해 주세요

사회를 움직이는 것은 젊음이지만 사회를 지탱하는 것은 연륜입니다. 노년층이 사회 속 일원으로서堂堂히 살아갈 수 있는, 또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실버 소식이 담겼으면 합니다. 이를 통해 정보를 얻고, 나아가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이 이어진다면 인천은 지금보다 훨씬 조화롭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 구영조 계양구 황어로

<굿모닝인천>은 그리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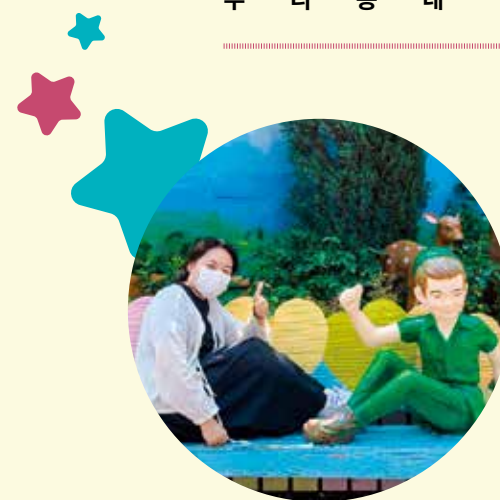
30년을 인천에서 살다가 결혼 후 고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에도 꼬박꼬박 챙겨 보던 <굿모닝인천>을 광명으로 이사 온 뒤에도 주소를 옮겨 받아보고 있습니다. 인천에 대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채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인천의 진솔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소식을 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박은진 경기도 광명시

감 사 합 니 다



우 리 동 네



어릴 적 나를 찾아 그곳으로

글 김나영

고향을 떠나 인천에 온 지 1년이다. 시작은 모든 게 낯설었다. '이제 여기가 발 딛고 살아갈 새로운 삶의 무대다.' 그렇게 인천에서의 일상은 여행이 됐다. 메인 무대는 '송월동'이었다. 어릴 적부터 동화나 만화에 대한 관심이 유별났거니와 커서도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끼고 사는 참이었다. 그런 내게 '동화마을'이라니. 차를 달려 그곳으로 향하는 15분은 꿈만 같았다.

가파른 비탈을 중심으로 갈비뼈처럼 뻗는 좁은 골목골목 모두가 색색의 옷을 입고 있다. 나지막한 담장을 따라 걷다 보면 어느새 마음에 동심이 핀다. '여기에 이런 그림이 있었던가?' 갈 때마다 새로움이 싹트기에 지루할 새가 없다. 봄과 여름이면 곳곳에 피어난 계절꽃을 감상하는 것도 색다른 재미다. 비라도 내릴 참엔 집 밖으로 마중 나온 자그마한 화분에서 짙은 사람 냄새가 풍긴다.

송월동 동화마을을 걸으면 어릴 적 나를 만날 수 있어 좋다. 모르는 게 많았던 만큼 호기심으로 가득했던 그 시절. 손이 닿는 대로 동화 전집을 꺼내 읽으면 수많은 궁금증과 소박한 꿈이 머릿속에서 뒤섞였다. 피노키오가 들어간 고래 뱃속을 탐험하고, 왕자를 만나 일곱 난쟁이를 떠났을지 모를 백설 공주를 미워했다. 물거품이 된 인어공주와 늑대의 바람에 날아가 버린 아기 돼지 삼 형제가 애처롭기만 했던 나.

어느새 도시 생활에 익숙해진 걸까. 밥 먹듯 머리를 채웠던 몽상도, 송월동 동화마을을 찾는 일도 무뎠던 지금이 아쉽다. 허나 시간은 늘 허락되어 있었다.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가려 한다. 바쁘다는 핑계로 내팽개쳤던 어릴 적 나를 다시 만나러 송월동 동화마을로 간다. 아기자기 펼쳐진 벽화와 별 모양 가로등, 사랑에 빠진 피노키오의 불그레한 얼굴을 바라보며 일상의 행복을 되찾을 수 있는 그곳으로.



송월동

모두 함께 누리는 'THE 좋은 INCHEON'

글 김세호 시 소통기획담당관실

민선 7기 인천시가 출범 2년을 맞았다. 그간 인천시는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이라는 시정 슬로건을 바탕으로 '시민들의 생활 만족도와 연대감이 높은 인천'이라는 구체적 목표를 향해 힘차게 달려왔다. 지난해에는 '2030 미래 이음' 구상을 통해 '미래 산업 경제 도시, 미래와 잇는 깨끗한 환경 도시, 세계와 이어진 기본이 튼튼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중장기 발전 과제를 설정하기도 했다. 올해 초, 인천시는 '완전한 해결, 굳건한 연결, 희망찬 숨결'이라는 시정 동인을 바탕으로, 시민의 숙원 과제들을 완료하고 시민 공동체와 도시 기본망은 잘 이어가면서 미래에 대한 희망과 확신을 불어넣는 시정에 매진해 왔다. 코로나19라는 세계적인 위기, 동북아의 복잡한 갈등 국면, 돼지 열병과 수돗물 사태와 같은 지역적 어려움 등 여러 난관이 있었다. 그럼에도 미래로 나아가는 걸림돌을 해소하고, 시민 행복을 위한 시정 주춧돌을 다지며, 세계 도시 인천으로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을 놓으려는 인천시의 도전은 멈추지 않았다.

완전한 해결, 공정한 인천으로

인천시는 우선, '장기 미집행 부지를 활용한 공원·도로 확충', '남북평화도로 영종~신도 구간 사업', '월미바다열차 개통' 등 여러 해묵은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 장기 미집행 공원·도로 확충 추진

국토계획법상 20년 일몰제에 따라 지정 해제를 앞둔 장기 미집행 부지 문제로 전국 모든 지자체들이 골머리를 앓아왔는데, 인천시는 전국에서 가장 선제적으로 해법을 마련했다. 인천시는 향후 2년간 5,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장기 미집행 부지를 시민을 위한 공원과 도로 확충에 활용할 계획이다.

■ **공원** : 2022년까지 총 5,641억원 투입, 원도심 48개소, 6.18km² 면적에 도심 공원 조성 (2023년 이후 53개 공원 조성 계획)

■ **도로** : 2023년까지 총 21km, 14개 노선 도로망 구축(2024년 이후 40개 노선 건설 계획)



계양공원



소래대교 도로 확장 공사

20
년 만에

◇ 남북평화도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및 착공

남북평화도로 사업은 영종도와 강화도를 2개의 연도교로 연결하는 '영종~강화 연도교 사업'을 민선 7기가 새로운 사업 모델로 구상해 10년 만에 성사시킨 사례다. 민선 7기는 출범과 동시에 영종 기점 남북평화도로 구상을 정부에 제안했고, 정부는 새로운 남북 교류의 물꼬를 열어갈 시발점이 될 이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확정했다.

- 남북평화도로 1단계 영종~신도 구간 본격 착공
- 강화부터 개성·해주 구간도 단계적 국가 계획 반영
- 인천 중심 남북 공동 물류 체계 구축 계획



10
년 만에

◇ 월미바다열차 개통

월미바다열차도 사업 시작 10년 만에 빛을 보았다. 그간 안전성 우려와 시민 혈세 낭비 논란을 낳으며 표류하던 '월미은하 레일 사업'을 민선 7기가 안전성 강화와 사업성 향상을 거쳐 '월미바다열차'로 탈바꿈시키고 드디어 운행을 시작했다.

- 원도심 재생 사업과의 시너지로 관광 및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영종~강화 남북평화도로
(영종~신도)

해묵은 난제 해결 BEST 10

- 1 일제강점기 조병창 설치 80년 만에 부평 캠프마켓 반환 군부대 이전 확정
- 2 국토계획법 개정 20년 만에 장기 미집행 공원·도로 확충
- 3 실시계획인가 이후 20년 만에 동구~중구 연결 도로 민관 합의
- 4 타워 기본 구상 용역 13년 만에 청라시티타워 착공
- 5 시운전 이후 10년 만에 월미바다열차 개통
- 6 도시계획 입안 10년 만에 영종~신도 연도교 건설 예타 면제 및 착공
- 7 개관 10년 만에 송도 투모로우시티 스타트업 파크 공모 선정
- 8 버스준공영제 시행 10년 만에 전국 최초 제도 개선 합의
- 9 세종 이전 3년 만에 해양경찰청 인천 환원 등 6개 공공기관 개소
- 10 사업 계획 13년 만에 로봇 산업 클러스터 구축 사업 승인

굳건한 연결, 공존의 도시로

인천시는 민생과 공동체, 그리고 도시 기본망을 튼튼히 잇는 일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이 ‘인천e음 인천사랑전자상품권’과 ‘GTX-B 노선 등의 광역·내부 교통망 사업’, ‘인천애플 같은 시민 쉼터 확충’이다.

◇ 인천e음 가입자 122만 명 돌파

‘인천e음’은 6월 말 현재 122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공적인 지역 사랑 상품권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시민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올해는 국비와 지방비 등 2,000억원가량을 투입해 1년 내내 10%의 캐시백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민선 7기는 인천e음을 통해 시민과 소상공인의 상생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 공존 플랫폼 구축이라는 새로운 모범을 만들어 가고 있다.

- 인천시 95% 가구 가입
- 3월부터 10% 캐시백 지급
- 가구당 매월 5만원 지급 효과



◇ 수도권 광역 철도 GTX-B 노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지난해 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GTX-B 사업은 인천을 포함한 서부 수도권 500만 시민들이 10년 넘게 열망해 온 사업이다. 인천시는 서부 수도권 주민들의 생활 여건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구체적 효과를 지속적으로 제시하며 당국을 설득해 사업을 성사시켰다. 인천시는 광역·내부 교통망 구축이 시민의 생활 여건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단절을 극복하는 촉매제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 인천에서 서울까지 이동 시간 30분대로 단축
- 2022년 하반기 착공 목표



◇ 시청 앞 광장, 시민 품으로

인천애플들은 시청 앞 공간을 닫힌 공간이 아닌 시민들의 쉼터로 돌려드리자는 취지로 시작한 민선 7기 1호 사업이다. 넓기만 하고 삭막한 아스팔트 광장보다는 시민들이 편하게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 명칭도 ‘플’로 해 친근감을 더했다. 민선 7기는 시민들을 위한 ‘쉼과 숨의 공간’이야말로 도시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라는 생각으로 도심공원과 숲 등을 늘려가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 서울시청광장 1.5배 규모에 달하는 시민의 정원 탄생
- 중앙공원 보행 육교 3개 구간(1.1km) 연결로 연계성 확보



원도심 경쟁력 강화 10대 혁신 과제

- ① 시민공간 확대(내항 1·8부두 개방, 부평캠프마켓 개방, 제3보급단 등 군부대 이전)
- ② 원도심 정비
- ③ 2022년까지 여의도 2배 면적 도심숲 조성
- ④ 41개 도로노선 확충과 도로 안정성 제고
- ⑤ 원도심 주차장 101개소 9,054면 2022년까지 확충
- ⑥ 전선류 48.3km 2024년까지 지중화 정비
- ⑦ 버스 쉼터 1,056개소 단계별 확충 및 개선
- ⑧ 속도감 있는 원도심 재생사업 추진
- ⑨ 시민이 신뢰하는 맑은 수돗물 공급
- ⑩ 예방중심 안전도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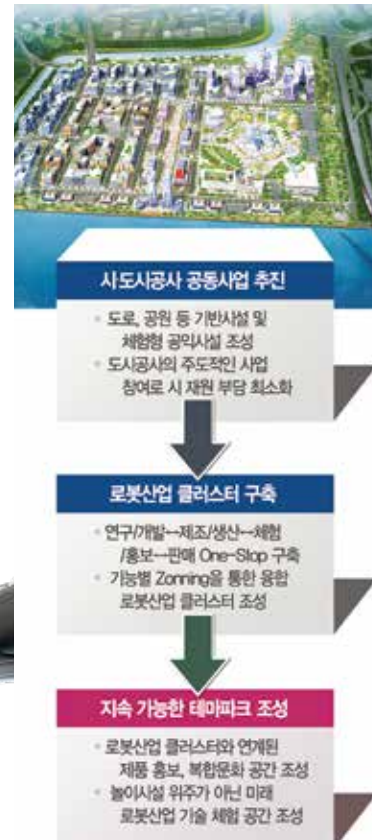
희망찬 송결, 공감의 미래로

민선 7기는 시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확신을 드리는 시정에도 매진했다. 대표적인 것이 ‘로봇랜드 등의 첨단 미래 산업 육성’, ‘스타트업 기업의 산실 인천’, ‘바이오-헬스 밸리·공항 경제권 등의 권역별 특화 사업 육성’이다.

◇ 미래 첨단 산업 성장 지원

인천시는 로봇랜드를 산업과 연구, 레저가 한데 어우러지는 지속 가능한 미래형 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자동차·항공·해양 분야에서 산·학·연은 물론이고 일반 시민들이 주체가 되는 복합 산업 클러스터를 지속적으로 늘려 인천의 미래 먹거리로 키워간다는 방침이다.

- 13년 만에 로봇랜드 사업 실행계획 승인
- 2020년 : 60개 기업, 430명 고용 ⇒ 2030년 : 400개 기업, 6,000명 고용



◇ 스타트업 파크 조성 사업

인천시는 지난 2019년 송도 투모로우시티에 정부의 스타트업 파크를 유치하는 큰 경사를 맞았다. 인천시는 스타트업 파크를 유치해 낸 그 도전 정신과 창의성을 스타트업 파크 등 인천의 창업 공간에 그대로 녹여내 인천을 스타트업 기업의 산실로 성장시켜 나갈 계획이다.

- 2019년 7월, 중소벤처기업부 스타트업 파크 공모 사업 1위
- 바이오 및 4차 산업 혁명 기술 기반 인천 스타트업 생태계 혁신 성장 지원
- 인천 창업자의 지속 가능한 도전 지원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 2020년 11월 준공, 2020년 12월 143개 업체 입주

투모로우시티

◇ 바이오-헬스, 복합 리조트, 공항 경제권(MRO) 육성

인천시는 송도 바이오-헬스 밸리, 청라 스트리밍 시티, 영종 복합 리조트, 남동 스마트 산단, 부평 자동차 산업 클러스터, 계양 테크노밸리 등 지역 주민들이 공감하는 권역별 특화 사업 발굴과 육성에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 바이오융합산업기술단지 부지 확보 및 지정
- 송도와 남동산업단지 연계 바이오-헬스 밸리 조성
-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독보적인 도시로 한 단계 도약
- 항공정비(MRO), 공항 경제권 구축과 복합 리조트, 마이스, 드론 등 미래 산업 육성 박차



인천판 뉴딜정책

- 1 바이오**
바이오공정전문센터 유치, 바이오원 부자재 국산화 지원센터 설립,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 설립, 바이오융합산업기술단지 조성
- 2 그린**
노후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생물융합클러스터 조성, 수소산업클러스터 구축
- 3 디지털**
인천실감콘텐츠 육성센터, 공공부문 비대면 인프라 구축

모두 함께 누리는 ‘THE 좋은 INCHEON’

민선 7기는 지난 2년간 시민만 생각하는 시정, 귀 기울여 듣는 시정, 열린 장을 여는 시정, 용기 있게 도전하는 시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 앞으로도 인천시는 공정하게 추진하는 시정, 성심껏 답하는 시정, 시민과 함께 가는 시정, 미래로 나아가는 시정으로 시민에게 다가갈 것이다. 인천의 경쟁력과 개성을 살려 시민과 함께 ‘더 좋은 인천’으로 나아갈 내일, 시민 모두의 행복이 자라고 소망은 이뤄지며 안전이 지켜지는 인천은 300만 시민 모두의 하나 된 힘으로 이뤄낼 수 있다.

민선 7기 2년, 인천 시민의 생각은?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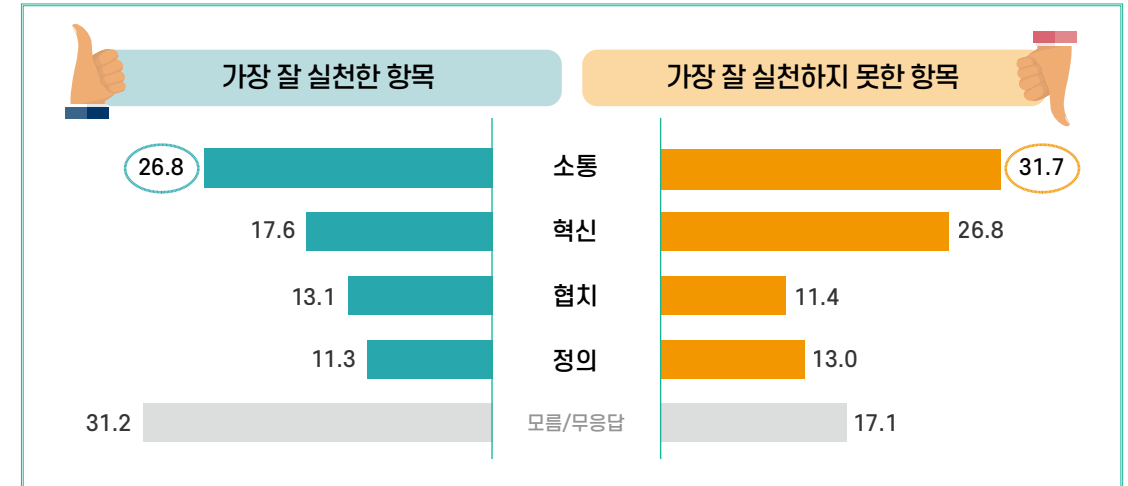
민선 7기 인천시 출범 2주년을 맞아, 인천시는 지난 2년간 민선 7기의 시정 운영과 주요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물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에 여론조사 기관 케이스탯리서치가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했다. 민선 7기 전반기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은 어떤지 <굿모닝인천>이 정리해 보았다.

민선 7기 2년, 소통·혁신 잘했지만 그만큼 아쉬움도 컸다.

민선 7기 인천시의 시정 4대 철학인 정의·소통·협치·혁신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물으니 소통과 혁신 순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실천이 부족했던 분야에 대한 질문에서도 똑같이 소통과 혁신이라고 답해, 시민들은 소통과 혁신에 힘쓰는 인천시의 노력에 좋은 점수를 주면서도 기대에 못 미친 것에 대한 아쉬움도 가진 것으로 보인다.

▶ 민선 7기 전반기 2년 - 시정 철학 평가

(단위 : 전체 N=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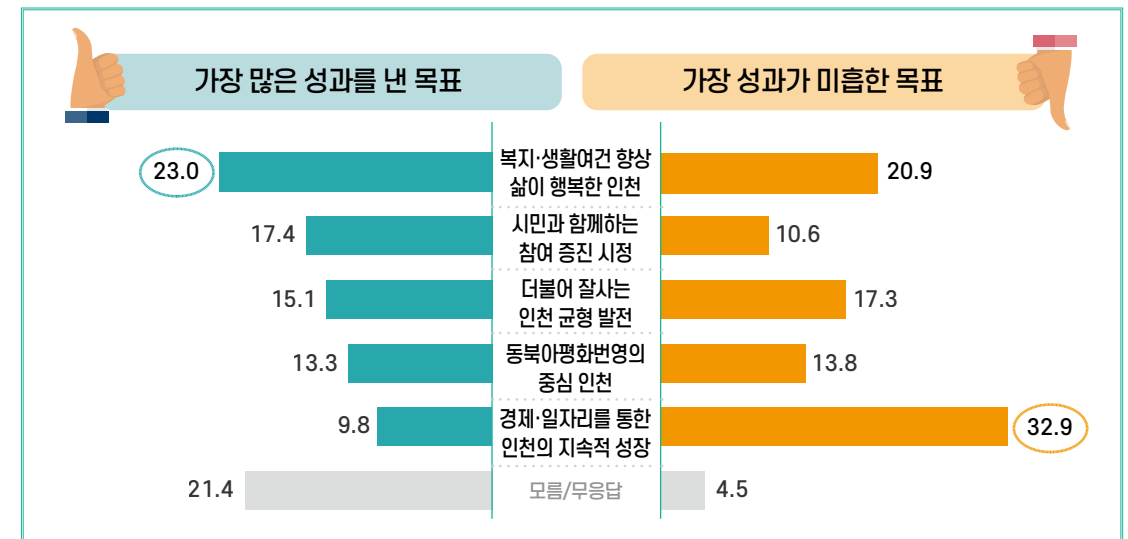


‘복지와 생활여건 향상으로 삶이 행복한 인천’ 잘 수행했지만 더 잘해야

민선 7기 5대 시정 목표에 대한 평가에서, 시민들은 ‘복지와 생활여건 향상으로 삶이 행복한 인천’,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 증진 시정’에 대해 높은 점수를 줬고, ‘경제·일자리를 통한 인천의 지속적 성장’, ‘복지와 생활여건 향상으로 삶이 행복한 인천’ 순으로 낮은 점수를 줬다. ‘복지와 생활여건 향상으로 삶이 행복한 인천’ 시정 목표에 대해서도 시민들은 만족과 아쉬움을 동시에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 민선 7기 전반기 2년 - 시정 목표 평가

(단위 : 전체 N=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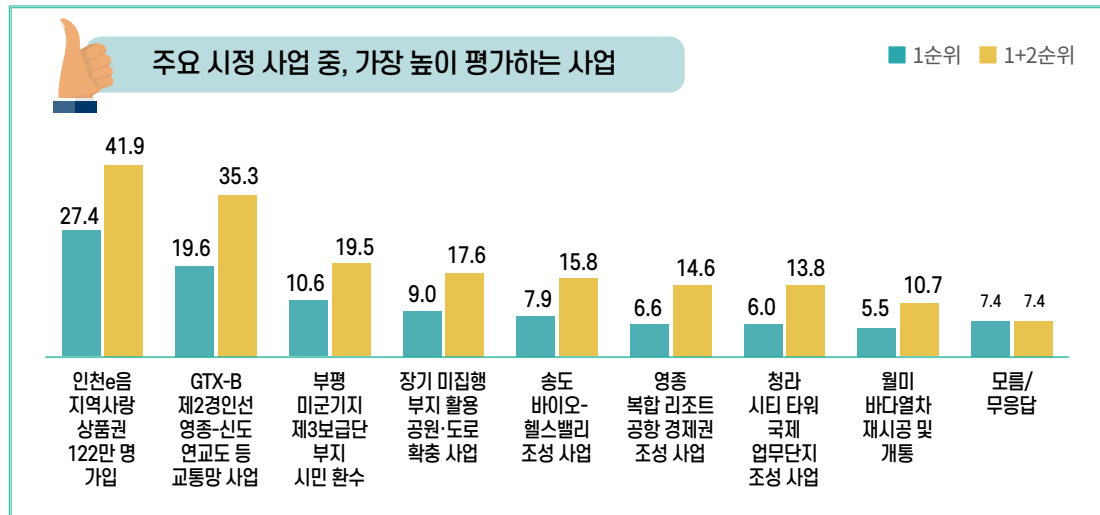


‘인천e음’, ‘교통망’, ‘군부지 시민 환원’, ‘장기 미집행 공원·도로 확충’ 좋은 성과

민선 7기가 시행한 여러 정책·사업 가운데 시민들은 ‘인천e음 지역사랑 상품권’, ‘GTX-B, 제2경인선, 영종~신도 연도교 등 교통망 사업’, ‘부평 미군기지 및 제3보급단 부지 시민 환수’, ‘장기 미집행 부지 활용 공원·도로 확충’ 순으로 높은 평가를 내렸다.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 복지·생활편의 향상과 관련한 시책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민선 7기 전반기 2년 - 시정 사업 평가

(단위 : 전체 N=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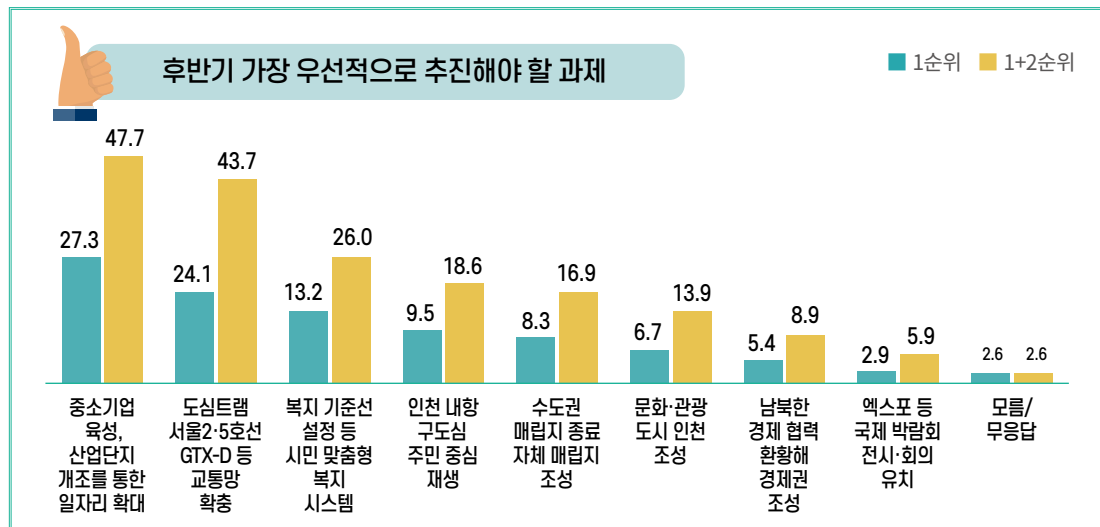


‘일자리 확대’, ‘교통망 확충’, ‘복지 향상’, ‘도시 재생’ 앞으로 더 주력해야

민선 7기가 후반기에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로, 시민들은 ‘중소기업 육성과 산업단지 개조 등을 통한 일자리 확대’, ‘도심트램과 서울2·5호선, GTX-D노선 등 교통망 확충’, ‘복지 기준선 설정 등 시민 맞춤형 복지 시스템’, ‘인천 내항과 구도심의 주민 중심 재생’ 등을 꼽아, 일자리·교통망·복지·도시 재생에 대한 시민들의 행정 수요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민선 7기 후반기 시정 과제 수요

(단위 : 전체 N=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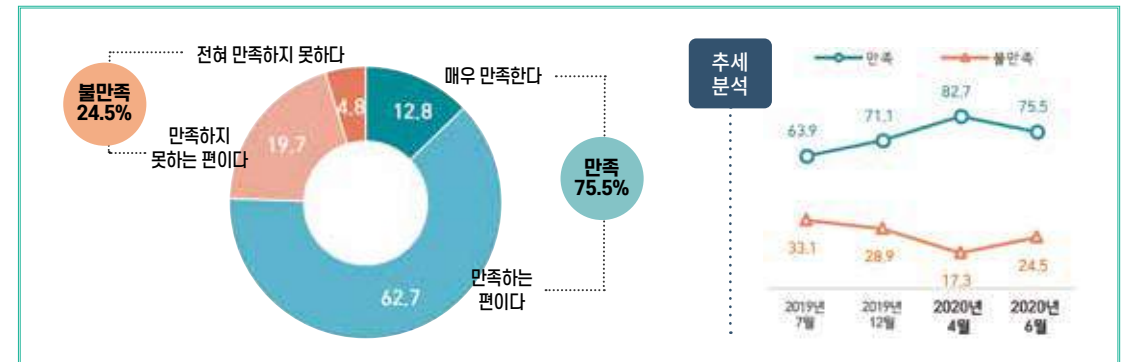


‘거주 만족도’, ‘소속감’ 매우 높음

한편 인천 시민으로서의 ‘거주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시민 4명 중 3명이 만족하는 것으로 답했고, ‘소속감’을 묻는 질문에도 시민 3명 중 2명이 소속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급격한 인구 유입과 도시 성장을 경험했음에도 많은 시민들이 인천에 대해 ‘자부심’과 ‘소속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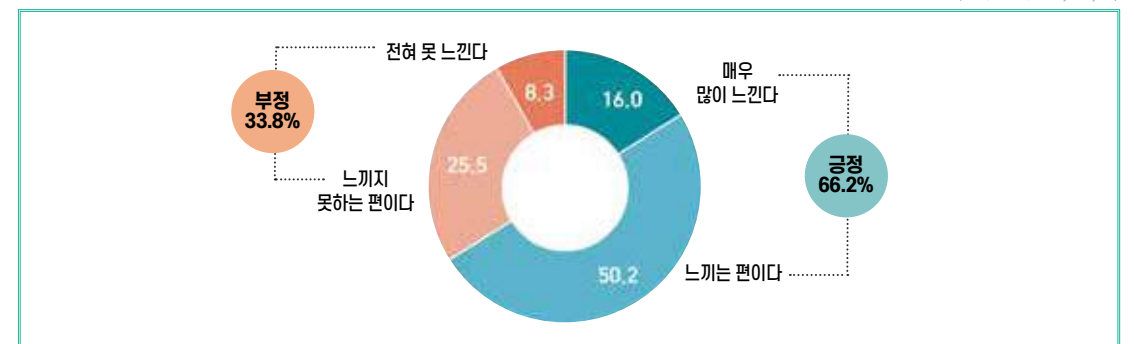
▶ 인천시 거주 만족도

(단위 : 전체 N=1,000, %)



▶ 인천 시민 소속감

(단위 : 전체 N=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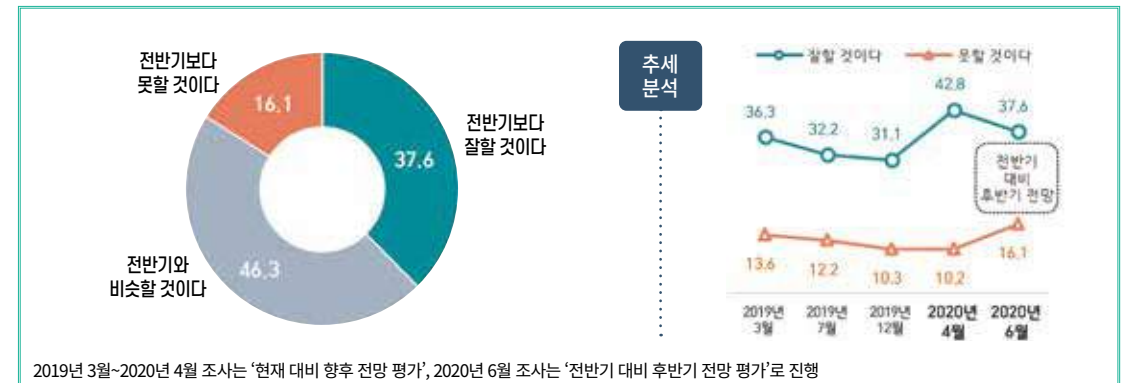


향후 2년 시정에 대한 시민 기대는 높은 편

한편 민선 7기의 후반기 2년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와 관련한 질문에서는 ‘전반기보다 잘할 것’이란 답변이 ‘전반기보다 못할 것’이라는 답변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시민들의 민선 7기 후반기 시정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민선 7기 후반기 시정 운영 기대

(단위 : 전체 N=1,000, %)



2019년 3월~2020년 4월 조사는 ‘현재 대비 향후 전망 평가’, 2020년 6월 조사는 ‘전반기 대비 후반기 전망 평가’로 진행

시민과 함께한 2년, 이렇게 변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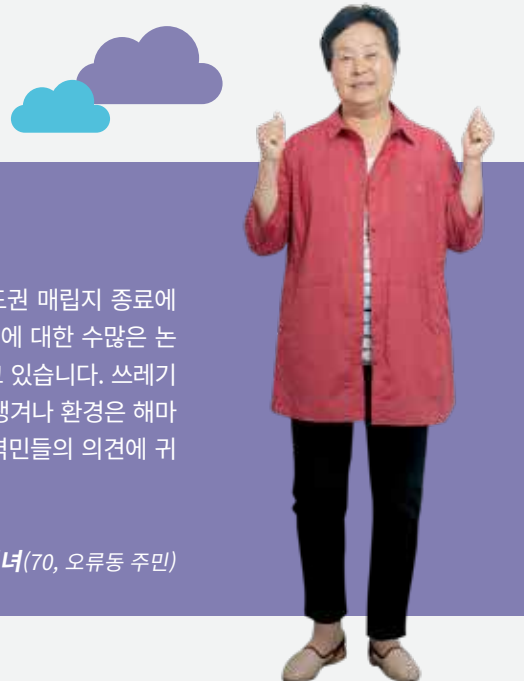
2018년 7월 1일, 민선 7기 인천시는 ‘정의·소통·협치·혁신’이라는 철학으로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2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시는 시민만 생각하는 시정, 귀 기울여 듣는 시정, 열린 장을 여는 시정, 용기 있게 도전하는 시정을 위해 묵묵히 걸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은 지금의 인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칭찬과 만족, 아쉬움과 바람 등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글 김윤경 본지 편집위원 | 사진 최준근 자유사진가

서구 주민의 숙원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결혼하고 나서부터 쪽 서구 오류동에서 살아온 주민으로서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에 대한 인천시의 발표는 정말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동안 쓰레기 매립지에 대한 수많은 논의가 반복되어 왔는데, 이번에는 인천시가 제대로 해결해 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지 때문에 오류동에는 매립지 관련된 폐기물 공장만 우후죽순으로 생겨나 환경은 해마다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가 종료되고 무엇보다 이곳 지역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주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로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선녀(70, 오류동 주민)



부평 캠프마켓 반환은 감격적이죠

인천시와 시민의 꾸준한 노력으로 지난해 말 캠프마켓 반환이 결정됐는데, 아주 감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부평 캠프마켓은 한반도 근세사에서 암울한 시기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100년 만에 주민들 품에 돌아 온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특히 시가 부평 캠프마켓 내 부지와 기존 건물의 활용 방안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데, 시민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는 인천시의 노력만큼 부평 캠프마켓이 멋진 공간으로 활용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박명식(59, 부평역사박물관 운영위원장)



애물단지가 보물단지로 변했어요

월미바다열차 개통은 월미도 주민들의 꿈이고 희망이었습니다. 10년간 방치되었다가 지난해 10월 월미바다열차가 운행하는 걸 보고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몰라요. 진짜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바다열차 개통 후 월미도를 찾는 사람들도 늘어나 행복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모두 어려운 시기입니다. 월미도 사람들이 바다열차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동안 버텼던 것처럼, 지금의 어려움도 반드시 이겨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염정숙(66, 월미도 상인)



시민 위한 크고 작은 정책이 반갑습니다

지난해 주차장이었던 시청 앞 공간이 시민들을 위한 잔디광장인 ‘인천앓돌’로 바뀌었습니다. 주말이면 아이와 분위기 좋은 초록 잔디 ‘인천앓돌’에서 공을 차며 자주 놀곤 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중앙공원에 편하게 산책할 수 있는 보행육교가 생겼더라고요. 그동안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중앙공원을 자주 찾지 않았는데, 보행육교가 설치되어 이제 안전하게 아이와 자주 이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크고 작은 정책들을 인천시 곳곳에서 추진해 주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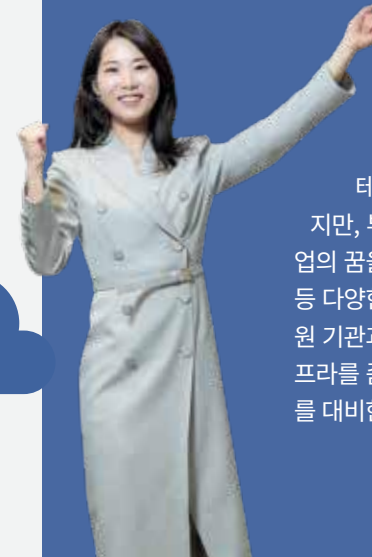
박지영(40, 간석동 주민)



‘꿈이룸’에서 청년의 꿈을 이뤄요

현재 운동과 재활이 필요한 강아지 복지와 관련한 애견 필라테스 사업을 준비 중입니다. 막상 창업하려니 두려운 마음이 앞섰지만, 부평구에 있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체험 점포 ‘꿈이룸’을 통해 창업의 꿈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점포체험교육을 통해 마케팅, 영업, 판매 등 다양한 분야를 배울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인천시에는 창업지원 기관과 지원책이 많은데, 다양한 지원정책이 잘 연계되어 여러 가지 인프라를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여러 가지 창업정책도 좀 더 많아졌으면 합니다.

전유진(26, 창업 준비 중)



2020 남동스마트산단 기대됩니다

남동공단에서 일한 지 10년 정도 됐습니다. 남동국가산업단지가 2020 남동스마트산단으로 지정되어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1,000개를 조성해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공장지원센터를 구축한다고 들었는데요. 노후화된 산단 환경이 개선되고 편리한 교통체계를 갖추면 좀 더 많은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곳으로 이곳을 찾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듭니다. 인천시가 남동스마트산단 근로자들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도 나선다고 하는데, 이곳에서 일하는 근로자로서 기대감이 큼니다.

박재풍(41, 남동공단 근로자)



인천시의 신속하고 빠른 대처에 깜짝 놀랐습니다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고향인 탄자니아에서 가족이 있는 한국으로 입국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한국에 도착했을 때, 보호 장비를 착용한 공항 직원들의 매우 빠르고 효과적인 일 처리에 감동받았습니다. 자가격리 기간에는 전담 공무원의 확인 전화를 수시로 받았습니다. 인천의 발 빠른 대처와 실시간 정보 공유,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한국에서의 삶은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방역에 있어서 인천시가 정말 신속하고 현명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마리암 커츠(47, IGC 조지메이슨대학교 교수)



쾌적한 환경에 일할 맛 납니다

올해 3월 2일 문을 연 남촌농산물도매시장은 현대화된 시설과 널찍한 주차 공간이 장점입니다. 예전에는 장소가 협소해 야외에서 경매를 진행할 때면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여기는 그런 걱정이 없어서 일단 마음이 편합니다. 구획별로 중도매인의 점포를 나누고 간판을 설치했기 때문에 소비자가 편리하게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어서 코로나19 여파로 외부 출입을 자제하는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농산물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비자와 상인 모두가 만족하는 다양한 편의시설이 더 갖춰졌으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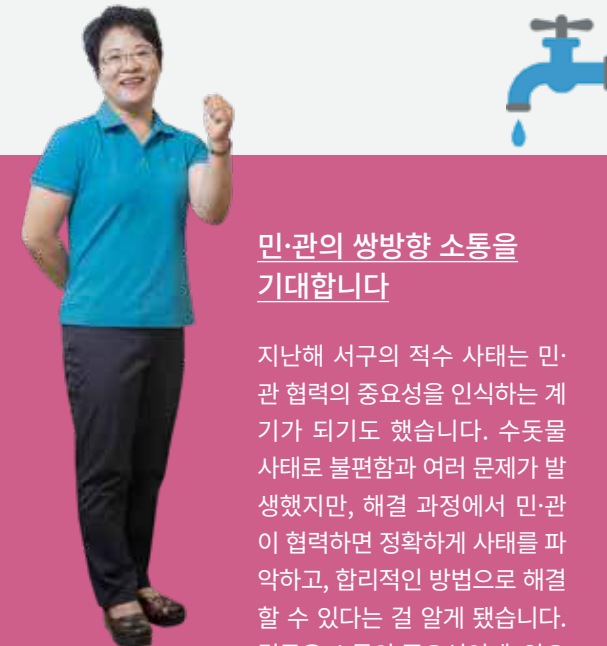
임중학(63, 남촌농산물도매시장 상인)



쓸 때마다 돈을 버는 기분입니다

전국에서 처음 시작한 지역 화폐인 '인천e음' 카드는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를 위한 획기적인 상품입니다. 상인들은 카드 수수료가 낮아서 좋고, 소비자는 포인트 혜택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물건값을 지불할 때 소비자의 60% 정도가 인천e음 카드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재난지원금을 인천e음 카드로 지원한 이후엔 매출이 30~40% 더 늘어났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금석(48, 모래내시장 상인)



민·관의 쌍방향 소통을 기대합니다

지난해 서구의 적수 사태는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수돗물 사태로 불편함과 여러 문제가 발생했지만, 해결 과정에서 민·관이 협력하면 정확하게 사태를 파악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결국은 소통의 중요성인데, 앞으로 시는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귀 기울여주고, 시민들은 시가 어떤 행정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 불신과 오해가 아닌, 협력의 체계를 이뤄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수돗물 시민평가단 및 대학생 서포터즈도 시작됐는데, 민·관의 쌍방향 소통을 더욱 기대해 봅니다.

김선자(49, 전 서구 수돗물 정상화 민관대책위원장)



의료진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보호 장비를 갖추고 병실에 들어가면 온몸이 땀에 젖고, 고글에 습기가 차서 시야가 흐려질 때가 많습니다. 인천의료원에 입원하는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해 체력적인 소모가 많지만, 든든한 동료들이 있기에 버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의료진은 마지막까지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싸움이지만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시민들도 동요하지 마시고 감염병 예방 수칙 등 기본적인 예방법을 지켜 다 같이 지금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혜경(48, 인천의료원 수간호사)

서로 도우며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힘든 시기잖아요. 저희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지난 3월부터 매일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방호복을 입고 있는 의료진과 코로나19를 검사하는 분들에 비하면 저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맙다는 이웃의 격려만으로도 충분히 힘이 납니다. 힘들수록 서로 도와야죠. 지금은 서로 돕고 마음을 합하지 않으면 코로나19를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시민들 모두 힘내십시오.

이규환(55, 남동구자율방범연합회 사무국장)



모두 힘든 시기입니다 지금 가장 아름다운 바다로

코로나19로 모두 힘든 시기입니다. 깊어가는 여름. ‘지금 가장 아름다운, 섬 그리고 바다’로 잠시 떠나고 싶습니다. 마음은 이미 섬에 있지만, 여행에도 ‘사회적 거리 두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섬 ‘드라이브 스루’와 ‘차박’ 캠핑. 차를 타고 사방이 탁 트인 바닷가를 달리다, 마음 닿는 곳에서 하룻밤 자는 게 요즘 여행 트렌드입니다. 코로나 시대, 거리도 마음도 가까운 인천 섬에서 현명하게 여름휴가를 즐기세요.

글 정경숙 본지 편집장 | 사진 류창현 포토디렉터

여기서 잠깐! 코로나19 해수욕장 방역 수칙 기억하세요!

- 중·소형 해수욕장 이용 권고(이용객 분산)
- 단체 방문 자제, 가족 단위 이용 권장
- 백사장 차양 시설 2m 간격 설치
- 물놀이 시 외에는 마스크 착용
- 물놀이 구역 침 뱉기 자제
-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발열 검사, 방문 기록 작성 등의 수칙 준수
- 샤워 시설 한 칸 떨어져 이용
- ‘해수욕장 코로나19 대응반’ 구성, 방역 상황 매일 점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드라이브하기 좋은 인천 섬

석모도·교동도, 영종도·용유도, 무의도,
선재도·영흥도, 신도·시도·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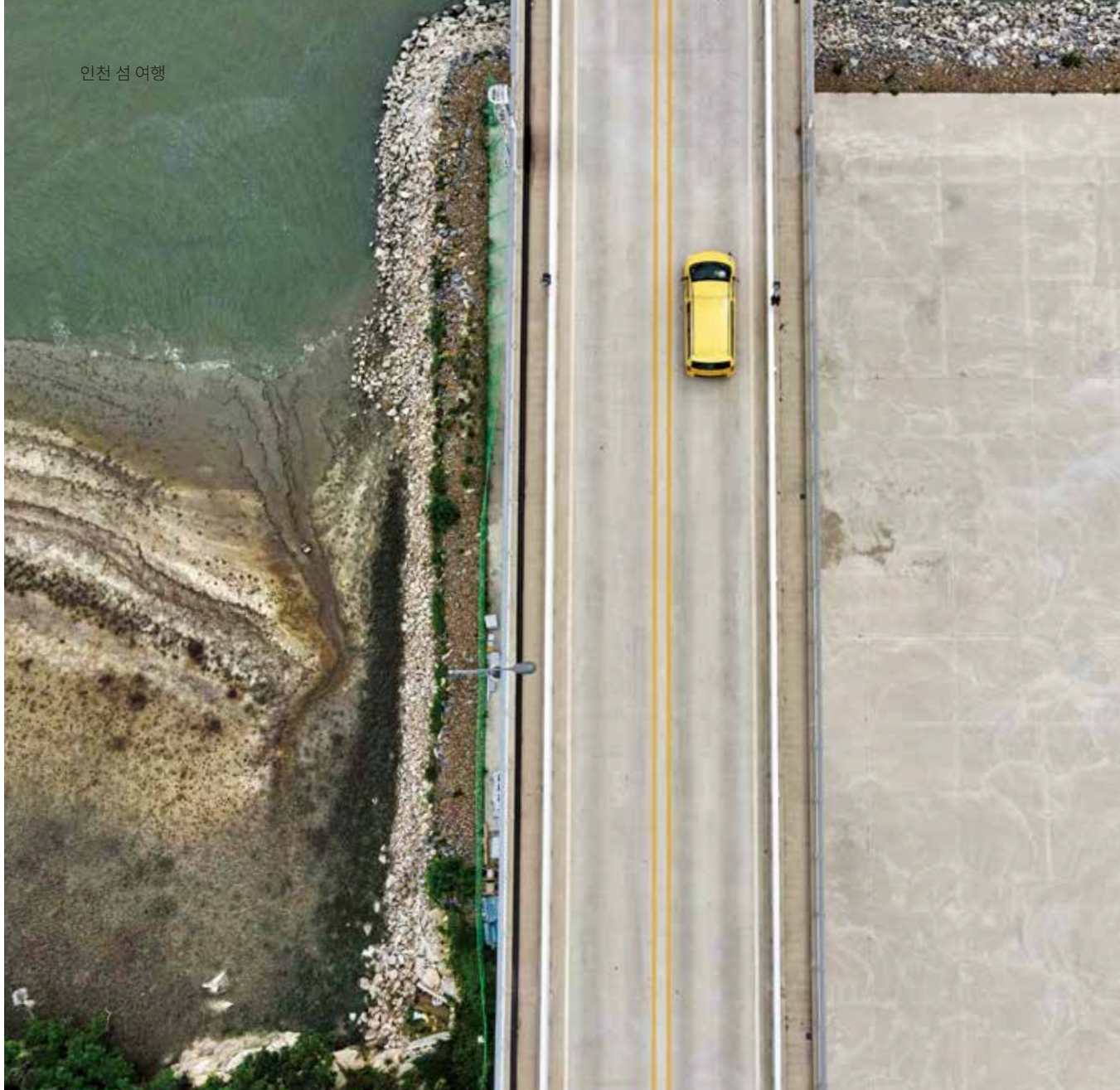


‘차박’ 캠핑하기 좋은 인천 섬, 해변

영종도 왕산해변, 무의도 실미해변, 덕적도 서포리해변,
소야도 떼뽕리해변, 시도 수기해변

무의도 실미해변에서 설정화, 정연복 부부(서구 당하동).

캠핑카를 몰고 서해, 남해, 동해 바닷가를 둘러보았지만, 인천만큼 좋은 여행지는 없다고 부부는 말한다.



하늘에서 본 석모대교

섬 ‘드라이브 스루’

석모도

여름이 파랗게 익어가면, 마음은 어느덧 길을 찾아 나선다. 하지만 사람들과 부대끼며 휴가지로 가기엔 아무래도 조심스럽다. 여행지로 가는 교통수단이 비행기에서 자동차, 대중교통에서 자가용으로 바뀌었다. ‘차차 격리’로 다리 건너 육지에서 섬으로, 섬에서 섬으로 가자.

강화도에서 불과 1.2km, 강화 치맛자락 뒤로 몸을 숨기고 있는 석모도는 ‘섬 속의 섬’이었다. 하지만 2017년 6월 석모대교가 놓이면서 섬은 ‘육지’가 됐다. 다리를 건너는 것부터 섬 여행은 시작된다. 경쾌하게 액셀러레이터를 밟으면, 차창 밖으로 하늘과 바다가 맞닿은 풍경이 물결친다. 섬은 해안을 따라 2차선 도로가 나 있어 호젓하게 둘러보기 좋다. 석모대교 건너 자연휴양림을 지나 보문사로 간다. 바다와 땅, 삶이 빚어낸 풍경. 느리고 깊게 파고들수록 길은 아름답다.

Drive Course

석모대교→석모도 자연휴양림
→보문사→민머루해변

천년 고찰 보문사는 경상남도 남해의 보리암, 강원도 양양의 낙산사 홍련암과 함께 우리나라 3대 관음 도량으로 꼽힌다. 잠시 시동을 끄고 ‘소원이 이뤄지는 길’ 425계단을 올라, 낙가산 중턱 눈썹바위 마애석불에 이른다. 은은히 들리는 목탁 소리. 발아래 섬과 바다가 어우러진 풍경이 순간 정지 화면처럼 펼쳐진다. 산에서 내려와서는 민머루해변으로 차를 돌린다. 바다 앞에 섰다. 푸른 물결이 밀려간 자리에 진회색 용단이 깔려 있다. 도시와는 다른 여유로움이 나른한 여름 공기 사이를 맴돈다. 바닷가를 둘러싼 숲에는 또 다른 세상이 있다. 울창한 나무 사이로 점점이 쏟아지는 햇빛. 숲 한가운데 길게 난 ‘힐링 둘레길’을 따라 걷는다. 흙길을 발끝으로 밟아들이고 산들거리는 바람을 느끼다 보면 발걸음이 절로 느려진다.

일상으로 가는 길, 사람으로 복적이던 외포리 선착장이 텅 비었다. 배를 따라 섬까지 날아오던 갈매기들이 담벼락 위에 우두커니 앉아 있다. 멀리 섬마을에 불빛이 하나둘 반짝인다. 따스하게 비추는 그 빛은 그저 평화롭다.



취재 영상 보기



보문사 가는 길



민머루해변



드라이브하기 좋은 인천 섬

여행도 ‘드라이브 스루’다.
다리로 이어져 ‘차차 격리’로 안전하고
편하게 갈 수 있는 섬.

- | **석모도·교동도** | 석모도 가까이에는 교동도가 있다. 강화도와 교동대교로 연결되어 세 섬을 함께 여행하기 좋다. 피란민들이 형성한 대룡시장에서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다.
- | **무의도** | 지난해 4월 ‘무의대교’가 놓이면서 가까워졌다. 남쪽에 솟은 호룡곡산과 북쪽의 국사봉을 잇는 등산로가 섬의 중앙을 가로지른다. 해안을 따라 호젓하게 트레킹을 즐기기에 좋다.
- | **영종도·용유도** |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다리 인천대교와 영종대교로 육지와 연결되어 있다. 그 길은 언제나 막힘 없이 시원하다. 12.3km에 이르는 인천대교 바다 구간은 드라이브의 하이라이트. 마치 바다 한가운데를 달리는 듯하다.
- | **선재도·영흥도** | 쪽 뺨은 시화방조제를 지나 대부도를 건너 영흥면 선재도, 영흥도까지 내쳐 달린다. 세 섬이 각각 다리로 이어져 차를 타고 한번에 갈 수 있다.
- | **신도·시도·모도** | 영종도 삼목선착장에서 배를 타야 하지만, 10분이면 간다. 삼 형제 섬이 다리로 연결되어 드라이브하기 좋다. 당일치기 섬 트레킹이나 라이딩 코스로도 인기가 높다.

왕산해변에서 정애란, 탁근혜 씨



호캉스 대신 ‘차박’ 캠핑

영종도·무의도

하늘을 이불 삼고 땅을 베개 삼아 차 안에서 보내는 하룻밤. 거창한 캠핑 장비도 머리 아픈 여행 계획도 필요 없다. 네 바퀴로 달린 끝에, 차를 세울 수 있는 전망 좋은 곳이라면 어디든 휴가지가 된다. 가까운 공원이나 숲속, 바닷가면 충분하다.

‘차박’ 캠핑이 새로운 여행 문화로 떠올랐다. 사방이 탁 트인 야외를 차로 달리다 마음 닿는 곳에서 하룻밤 머물며, 사회적 거리 두기로 껍박 눌려 왔던 여행에 대한 욕구를 푼다.

“날이 흐리면 흐린 대로 별이 강하지 않아 좋고, 둘이라 외롭지도 북적거리지도 않아 좋아요. 바닷가 풍경도 아름답고요. 힐링의 시간이에요.” 정애란(47) 씨와 탁근혜(46) 씨는 간단한 먹을거리만 싸 들고 이른 아침 길을 나섰다. 정 씨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가게를 접고,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집에 있는 아이들을 뒷바라지했다. 바뀐 일상에 아이들도 어른들도 지쳐갔다. 아이들이 학교에 간 날, 엄마는 모처럼 자연 안에서 자신에게 관대한 시간을 보낸다.



취재 영상 보기



무의도 실미해변

모두 힘든 시간.
인천 섬에서 행복인 줄 몰랐던
평범한 일상을 기다리며
잠시 숨을 고른다.

정해진 길은 없다. 차를 타고 달려, 영종도에서 첫 발자국을 찍고 마음 가는 대로 달려 영종도 왕산해변에 이르렀다. 사람들이 모인 해수욕장에서 빗겨난 흙길로 들어선다. 그 끝엔 느리게 흐르는 시간이 있고, 그 안에 자리 잡은 아름다운 풍경이 있다.

영종도에서 다리를 건너 다시 섬으로 간다. 무의도 실미해변. 평일 오후인데도 바닷가엔 유유자적 캠핑을 즐기는 사람이 많다. 서울에 사는 이기봉(60) 씨는 불현듯 낯선 길을 찾아 떠나고 싶을 때면 인천을 찾는다. “인천 섬은 가깝고 아기자기한 맛이 있어요.” 차를 타고 가다 세우는 곳이 내 집, 내 정원이 되니 마음이 훌쩍 가볍다. 오늘 밤이 지나면 비가 온다는데, 걱정이 없다. 오히려 빗속 낭만이 기다려진다.

하늘빛이 달라진다. 노을빛 진 수평선 사이로 섬들이 아스라하다. 마음을 비운 자리에 그 빛을 채우고 섬과 바다를 담는다. 모두 힘든 시간이다. 행복인 줄 몰랐던 평범한 일상을 기다리며 잠시 숨을 고른다.



무의도 실미해변



‘차박’ 캠핑하기 좋은 인천 섬, 해변

네 바퀴로 달리다 마음 닿는 곳이 바로 호텔이고, 펜션이다. 숲이 있고 바다가 있는 ‘차박’ 캠핑지.

- | **영종도 왕산해변** | 도심에서 지척이라 바다 품으로 한걸음에 달려갈 수 있다. 사람들로 북적이고 조금은 때도 땃지만, 해수욕장 근처를 잘 둘러보면 한적한 ‘차박’ 명소가 있다.
- | **무의도 실미해변** | 영종도에서 무의대교를 건너간다. 실미유원지엔 소나무 숲이 우거지고 편의시설을 잘 갖춘 캠핑장이 있다. 물길이 열리면 바로 앞 실미도로 걸어 들어갈 수 있다.
- | **덕적도 서포리해변** | 바다가 그리울 때 쉽게 닿을 수 있는 섬. 육지에서 뱃길로 단 1시간, 정기여객선이 수시로 다닌다. 배에 차를 싣고 갈 수 있어 ‘차박’도 가능. 해변에 오토캠핑장이 있다.
- | **소야도 떼뿌리해변** | 덕적도에서 다리를 건너가면 만나는 섬. 소야도 큰말 서쪽에 있는 ‘떼뿌리해변’은 혼자 알고 싶은 비밀스러운 낙원이다. 여느 바닷가보다 한적해, 여행자들이 꿈꾸는 섬의 순수함을 누릴 수 있다.
- | **시도 수기해변** | 모래사장이 초승달 모양으로 길게 뻗은 바닷가. 솔숲이 울타리처럼 둘러쳐져 아늑하다. 펜션 앞에 캠핑장이 있어 가족 여름 휴식처로 모자람이 없다.



INCHEON JUNGANG PARK

멈춤 없이 자연을 누린다

도시 하면 떠오르는 컬러가 변화하고 있다. 잿빛은 지고 초록이 뜨고 있다. 인천도 마찬가지다. 자연이 생동하는 친환경 도시 조성을 위한 시의 노력이 최근 또 하나의 결실을 맺었다. 도시의 허파로 기능했던 중앙공원을 하나로 연결하는 보행 육교가 놓였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멈춤 없이 자연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이 시간, 인천 중앙공원 보행 육교와 그 선배 격인 싱가포르 파크 커넥터Park Connector를 함께 걸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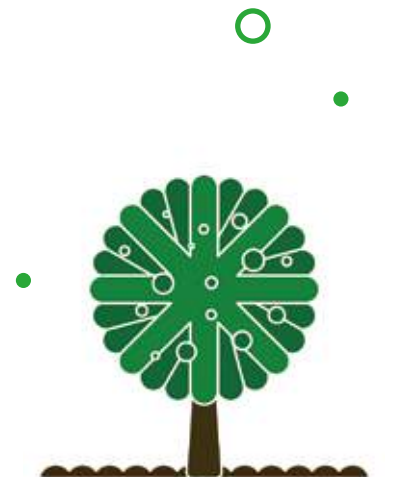
글 김태웅 인천시 인천대공원사업소 시설팀 | 사진 최준근 자유사진가, 셔터스톡



도시의 허파, 인천 중앙공원

도심에서 시청으로 향하는 길. 양쪽으로 난 도로를 끼고 길게 펼쳐진 녹지대를 발견할 수 있다. 35만㎡ 규모의 중앙공원은 도시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인천의 허파다. 약 3.9km에 이르는 벨트형 녹지대가 9개 지구별로 특색 있는 테마를 갖고 조성되어 있다. 공원을 중심으로 주택 지구와 상업 지구가 나뉘어 있어 완충 역할도 톡톡히 한다. 도시의 열악한 기후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이고 인천문화예술회관을 비롯해 축구장, 분수, 광장, 휴게 공간 등 각종 공원 시설과 풍부한 녹지를 함께 갖추어 시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남북으로는 십정녹지와 가좌녹지, 석남녹지를, 동서로는 인천대공원과 수봉공원, 자유공원을 이어주는 연결고리이자 인천 공원 녹지 네트워크의 주요 축의 하나로 큰 의미가 있다.



SINGAPORE PARK CONNECTOR VS





인천 중앙공원

위치 인천시 남동구 간석1, 4동, 구월3동, 남구 관교동 일원
면적 35만3,000m²
시설 인천문화예술회관, 축구장, 분수, 광장, 보행 육교, 휴양 시설 등
홈페이지 www.incheon.go.kr
문의 032-440-5824

인천도시철도 1호선 인천시청역에서 예술회관역까지 중앙공원 3개 지구가 보행 육교로 연결됐다.



350여 개에 이르는 공원과 명소를 연결한 싱가포르 파크 커넥터.

VS



싱가포르 파크 커넥터

위치 싱가포르
시설 공원, 보행자도로, 수로, 해변 등
홈페이지 www.nparks.gov.sg
문의 1800-476 1600

막힌 혈관을 뚫기 위한 노력

아쉬움도 있었다. 공원이 조성되기 시작한 1988년 이전부터 구획된 8개의 도로 탓에 공원은 9개로 분리될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한 단절은 공원 이용객들에게 큰 불편을 주었다. 산책과 조깅, 자전거 이용 시 공원을 뚫뚫 끊어놓은 도로를 건너기 위해 신호를 기다려야 했고, 지속적 활동이 어려워짐에 따라 선형공원 線形公園으로서의 장점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

이러한 아쉬움을 해소하고자 우리 시는 ‘중앙공원 녹지축 연결 및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인천발전연구원 2002년, 2006년)를 진행했고, 그 결과 공원 간 연결 동선 확보 및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해 연결 육교 설치 방안이 제시됐다.

이를 바탕으로 타당성 조사 및 기본 설계를 거쳐 2018년 단계별·지구별 마스터플랜이 마련

됐다. 그리고 2020년, 중앙공원 3~5지구를 연결하는 보행 육교 2개소가 완성됐다.

시민, 하늘 위를 걷다

완성된 보행 육교는 인천시청역지구(3지구)에서 조각원지구(4지구)를 연결하는 폭 3m, 연장 111.6m와 조각원지구(4지구)에서 하트분수지구(5지구)를 연결하는 폭 3m, 연장 107m의 강교 구조다. 두 개의 육교를 통해 시민들은 도로 위를 걸어 멈춤 없이 공원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이왕 조성할 바에 심미성을 최대한 살리는 것이 어떨을까?’라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지만, 공원 훼손을 최소화하고 기존 지형의 조화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 사업이었다는 사실을 알면 아쉬움은 사라진다. 유리 난간을 적용해 주변 경관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연결 램프를 설치해

보행 약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이용 편의를 고려했다는 점도 눈에 띈다.

중앙공원 전체의 약 3분의 1에 달하는 구간이 하나의 공간으로 연결되면서 공원 이용 반경이 확대되고, 이용 패턴이 다양해지는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들이 감지됐다. 이는 중앙공원 모든 구간의 연결에 대한 필요성을 한층 더 끌어올리는 계기로 작용했고, 우리 시는 이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다.

공원과 녹지를 연결, 싱가포르 파크 커넥터

파크 커넥터 네트워크(Park Connector Network, PCN)는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공원·녹지 이용 활성화 정책이다. 싱가포르 내 350여 개에 이르는 공원뿐 아니라 다양한 명소를 연결해 환경과 안전 여건을 개선하고, 시민 여가 기회를 늘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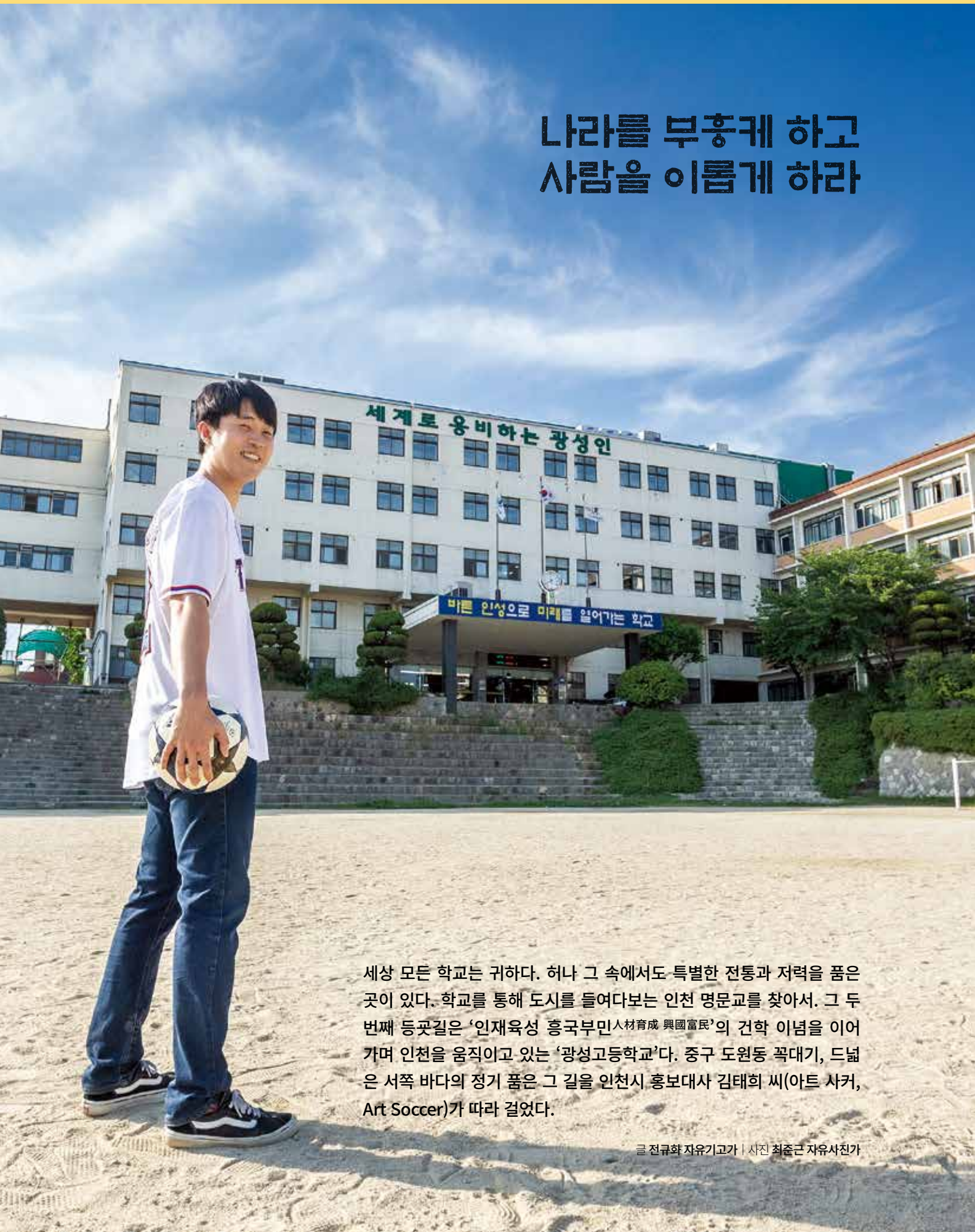
위한 선형·개방형 네트워크다.

싱가포르는 약 3분의 1이 녹지로 뒤덮여 있는 도시다. 지역별로 동부 해안 루프~노던 익스플로러 루프~노스 이스턴 리 버린 루프~웨스턴 어드벤처 루프~센트럴 어반 루프로 연결된 5개의 연결고리를 통해 아름다운 도시의 풍광을 눈에 담을 수 있으며, 수로를 따라 산책과 조깅, 자전거 등을 통한 여유로움은 물론이고 야외 모험과 레크리에이션 등도 즐길 수 있다.

싱가포르에는 2019년 현재 약 300km 이상의 파크 커넥터가 설정되어 있으며 대중의 약 26%가 이곳을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통해 녹지 공간의 접근성과 연결성을 높이면서 자연을 경험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공유하기 위한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시민 삶의 질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도시 녹화와 레크리에이션 전략이 더해진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나라를 부흥케 하고 사람을 이롭게 하라



세상 모든 학교는 귀하다. 허나 그 속에서도 특별한 전통과 저력을 품은 곳이 있다. 학교를 통해 도시를 들여다보는 인천 명문교를 찾아서. 그 두 번째 등곳길은 ‘인재육성 흥국부민(人材育成 興國富民)’의 건학 이념을 이어가며 인천을 움직이고 있는 ‘광성고등학교’다. 중구 도원동 꼭대기, 드넓은 서쪽 바다의 정기 품은 그 길을 인천시 홍보대사 김태희 씨(아트 사커, Art Soccer)가 따라 걸었다.

글 전규화 자유기고가 | 사진 최준근 자유사진가



인천시 홍보대사 김태희 씨와 김승근 교감 선생님이 광성고등학교의 역사가 담긴 트로피 진열장을 바라보고 있다.

65년 한자리를 지킨 굳건한 거목

비좁은 주택가를 지나 학교로 향한다. 다다른 교문. 허나 아직 멀었다. 가파른 비탈에 고개가 절로 숙여진다. 가쁜 숨을 고르며 허리를 편다. 웅장한 교사校舍가 눈에 들어찬다. 학교가 바라보는 시선을 따라 고개를 돌리니 인천 원도심의 너른 풍광이 펼쳐진다. 학교는 그렇게 65년 세월 동안 한자리를 지키며 인천을 굽어봤다.

“‘정기(精氣)’라는 말이 있잖아요? 광성고등학교는 그 말이 딱 어울리는 곳에 자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도심이 개발되기 전에는 서해를 한눈에 담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설립자 추포(秋圃) 류충렬 선생. 그는 광성을 논할 때 결코 빠질 수 없는, 아니 어쩌면 광성 그 자체다. 때는 6·25전쟁 직후, 먹고살기만도 벅찼던 그 시절. 당시 경찰서장이었던 류충렬 선생은 도원동 언덕에

희망의 밑알을 뿌렸다. 광성의 모태 인천소년수양원의 탄생이었다. 구두담이, 신문팔이로 연명하던 전쟁고아와 길바닥에 내앉은 아이들에게 배움의 길이 열렸다. 가슴에 새겨진 ‘인재육성 흥국부민(人材育成 興國富民)’의 가치를 몸소 실천한 순간이었다.

“드넓은 서해를 바라보아라. 미래에 대한 포부를 품어라. 큰 오기를 갖고 나라를 위한 인재가 되어라.” 1973년부터 10여 년간 광성고등학교에서 국어교사를 지낸 조우성 전 인천시립박물관장의 뇌리에도 매일 아침 조회 시간 아이들을 향했던 류충렬 선생의 외침이 선명히 남아 있다.

“1955년 인천소년수양원 개원 이후 광성고등공민학교, 광성상업고등학교를 거쳐 1973년, 지금의 광성고등학교라는 이름을 얻었다고 해요. 이후 올해까지 46회 졸업생과 1만8,000여 명의 동문을 배출하며 인천의 명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1966년 인천소년직업학교로부터 인천고등공민학교, 광성고등공민학교로 이어진 교사 전경.

인천을 움직이는 인천의 학교

류충렬 선생은 실력 있는 학교를 만들고 싶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력 있는 교사가 필요했다. 당시로서는 파격적이었던 ‘250% 보너스’를 내걸었다. 인천뿐 아니라 서울에서도 인재들이 몰려들었다. 돈 때문만은 아니었다. 선생의 진심에 대한 깊은 공감과 존경이 사람들을 모았다. 조우성 전 관장은 한때 광성고등학교 교사 중 10명 이상이 대학교수 출신이었다고 회상했다.

“설립자의 확고하고 투철한 교육 철학, 그 철학에 공감하는 우수한 교사진, 열심히 배우고 익히는 학생들이 어우러져 오늘날의 명문 사학으로 완성된 것이 아닐까 합니다.”

광성고등학교의 진가가 발휘된 것은 인천 고교 평준화 이후부터다. 제물포고와 인천고 등 전통적 명문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인재양성人材育成’을 실현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그 인재가 바로 ‘지역의 인재’라는 점이다. 지금도 광성인들은 인천 곳곳에서 활동하며 광성의 이름을 드높이고 있다. 공직과 사회단체, 정계 할 것 없이 광성의 가치를 잊지 않고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것이다.

시민을 섬기는 인천시 공무원 중 광성고등학교 출신이 유독 많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흥국부민興國富民’이라는 학교의 지향점이 사회와 맞닿아 실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

광성과 함께 빛나는 Star



성동일(영화배우) 11회 졸업
2016년 SAF 연기대상 판타지 드라마 부문 남자 특별 연기상 수상 외



소지섭(영화배우) 22회 졸업
광성고등학교 수영부 출신
2018년 MBC 연기대상 대상 수상 외



체육 특성화 학급 운영에 따라 마련된 체력단련실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광성고등학교 태권도부.

광성고등학교는 모든 학생들의 프로필을 별도 관리하며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진로·진학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다니고 싶은 학교, 보내고 싶은 학교

오후 4시 30분. 아이들이 떠난 텅 빈 운동장에서 함성이 울려 퍼진다. 30도를 넘는 불볕더위 속에서 광성고등학교 태권도부 학생들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광성고등학교는 체육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요. 태권도부와 수영부가 지역과 전국 단위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합니다. 영화배우 소지섭 씨도 자랑스러운 광성의 수영부 출신이라고 하네요.”

광성고등학교는 몇 해 전부터 체육 특성화 학급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체육에 흥미와 소질이 있는 학생에게 특성화된 교육을 제공하고, 나아가 체육 관련 학과에 진학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오늘, 광성의 다른 이름은 ‘과학’이다. 생물실과 물리실, 화학실 등 첨단 기자재를 갖춘 과학 교육 인프라를 갖췄다. 수학과 과학 동아리 주도로 매년 개최되는 창의 융합 STEM 축제, 인하대학교와의 연계 실험 수업, 꿈을 찾아 떠나는 과학 산책 등 체계적인 교육 커리큘럼은 광성의 내일을 기대하게 하는 이유다.

수준 높은 진로·진학 프로그램도 빼놓을 수 없다. 모든 학생들의 흥미와 적성, 역량이 집약된 프로파일 Profile을 별도 관리하며 맞춤형 상담을 통해 꿈을 응원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과 경쟁력은 오늘날 광성고등학교를 학생이 다니고 싶은 학교, 학부모가 보내고 싶은 학교로 만들었다.



‘인재육성 흥국부민’은 광성고등학교의 어제와 오늘, 내일을 있게 하는 철학이자 가치다.



MINI INTERVIEW

갈영 광성고등학교 교장(현직 화가)

“설립자이신 추포 류충렬 선생의 진심 어린 교육 철학과 탁월한 리더십은 오늘날까지도 인천 지역사회에서 많은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광성인들은 ‘인재육성 흥국부민人材育成興國富民’의 건학 이념, ‘성실과 협동’이라는 교훈 아래 광성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성의 가장 큰 힘은 공감과 신뢰입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교직원과 학생, 동문들이 광성의 철학에 깊이 공감하며 서로 간의 신뢰 속에 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하고 건전한 학교 운영, 수준 높은 교육 서비스 제공을 통해 인천을 부흥케 하고, 시민을 이롭게 하는 광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선7기 2주년기념 BEST 정책 퀴즈쇼

BY 유사랑



“이젠 깨끗한 환경에서,
맑은 공기 맡으며 살고 싶어요”



시민 시장
김종수

“

쓰레기는 버리면서 자신이 사는 곳에는 쓰레기 처리 시설을 안 짓겠다는 게 말이 되나요?
수도권 매립지 종료 약속 시한인 2025년까지 아직 5년이 남았습니다. 3개 시도가 지금부터
자체 처리 방안을 진심으로 고민한다면 이곳 주민들이 발 뺀고 잘 수 있을 겁니다.

”

글 김진국 본지 총괄편집국장 | 사진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1990년대 초, 인천시 서구 백석동 백석고가교 아래 한 무리의 사람들이 웅성대고 있었다. 잔주름이 잔뜩 잡힌 중년의 남자들, 수건을 뒤집어쓴 할머니. 한눈에 봐도 농사를 짓는 사람들임을 알 수 있었다. 이들이 들고 있는 ‘쓰레기매립지 결사반대’ 플래카드가 바람에 을씨년스럽게 펄럭거렸다.

“농사일밖에 모르는 촌사람들이 데모가 뭔지 알거나 했나요? 도저히 견딜 수 없다 보니 논밭에서 뛰어나온 것이었지요.” 인천·경기·서울시의 쓰레기를 매립하는 수도권 매립지 인근에서 평생을 살아온 김종수(64) 씨는 30년 전을 이렇게 회상했다. “쓰레기차가 오가며 파리 모기가 말도 못하게 날아다녔어요. 길가엔 오물이 넘쳐났고 침출수가 무릎까지 차오르는가 하면 악취가 엄청났지요. 밤마다 탕 탕 탕 하는 쓰레기를 털어내는 청소차 소음은 또 얼마나 시끄러웠던지.”

서구 경서동에서 태어난 김 씨는 바로 옆 오류동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평온하던 마을이 쓰레기 더미로 바뀌기 시작했다. 마을 주민들이 들고일어났지만 결국 쓰레기 매립지는 들어왔다. 시간은 흘러 수도권 매립지는 드림파크로 거듭났지만 주민들은 또 다른 고통을 겪고 있다고 털어놓는다, “매립지가 있다 보니 주변에 폐기물처리업체들이 우후죽순 들어섰습니다. 비산 먼지가 말도 못하게 날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모발 검사를 했는데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해 나오면서 주거부적합지역 판정을 받았다”며 “주민들에게 약속한 대로 수도권 매립지 2025년 종료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매립지 피해 영향권 내에 사는 사람들만 4만여명에 이릅니다. 여기 사는 사람들은 2016년 매립을 종료한다는 말만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주민

들과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2025년까지 매립 연장을 결정한 겁니다. 좋습니다. 이왕 지나간 일이니 잊어버리고 다시 약속한 2025년 매립 종료는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

쓰레기가 분해되는 시간은 1회용 기저귀 100년, 플라스틱 용기 500년, 유리 조각은 1,000년 이상이 걸린다. 이런 것들은 분리수거가 돼야 하지만 쓰레기봉투에 담겨 마구 뒤섞여 들어온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감시원들이 반입 차량을 대상으로 검사해 적발될 경우 반입 금지와 같은 벌점을 주지만 그 많은 쓰레기봉투를 일일이 뜯어 볼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자칫 천재지변과 같은 예측 못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매립지는 환경 재앙의 진원지가 될 수도 있다.

“쓰레기는 버리면서 자신이 사는 곳에는 쓰레기 처리 시설을 안 짓겠다는 게 말이 되나요? 2025년 종료까지는 아직 5년이나 더 남았습니다. 우리 인천은 물론이고 서울, 경기도가 자체 처리 방안을 지금부터 고민한다면 여기 주민들이 발 뺀고 잘 수 있을 겁니다.”

김 씨는 “30년 넘게 고통받았으면 이제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냐”며 “앞으로도 평생 살아온 고향을 떠나지 않고 살아가길 소망한다”며 말을 맺었다.



희망 품고 찾아와 꿈을 펼친 인천

글 최용규

충청남도 서천에서 태어나 국민학교를 마치고 송도중학교에 진학하게 되었다. 그러한 내 눈에 비친 인천은 촌놈의 호기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멋진 대도시였다. 세상에 태어나 처음 맛보는 라면, 동인천역 앞에 잔뜩 모여 있던 리어카 짐꾼 아저씨들, 공설운동장의 개싸움, 짜리재 입구 상업은행의 에스컬레이터가 신기했다. 자유공원 아래 화교촌의 중국인 아이들, 만석동 조선소에서 나오는 나무 껍데기(자취집의 연료), 한국유리에서 가져온 낫그릇 닦는 모래도 청소년기 기억의 편린으로 남아 있다. 하인천역 뒤편 만석부두의 생선과 해산물을 파는 아주머니들, 밤에 뚝고개에서 환하게 내려다보이는 인천제철 용광로의 거대한 불기둥, 송림5동 사무소 옆의 구수한 어묵 공장, 배 타고 가본 강화도의 마니산과 전등사 등 좁은 세계에 갇혀 살던 열세 살 꼬마의 눈에 인천은 요지경이었다.

처음 편성된 중학교 반에서 내가 크게 위안받은 것은 같은 반 급우의 3분의 1 정도가 나처럼 충청도 등 지방에서 온 아이들이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인천 태생의 친구들과 출신지에 따른 이질감이 전혀 없었다. 내가 존경하는 인천의 어른께서 즐겨 인용하시는 해불양수海不讓水의 뜻도 모르던 시절이었는데 당시 내가 느낀 감정이 바로 해불양수였다.

하인천 철도공무원 관사 하숙집에서, 도화동 인천체육관 아래 하숙집에서, 뚝고개의 자취집에서 그리고 부평의 형님 가게에서 나만의 세계를 즐기던 아이에게 인천은 참으로 좋은 도시였다.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고 기회를 주는 가족과 사회에서 나는 내 소질을 충분히 발휘할 기회를 찾았고 그러한 나에게 인천은 내 소질을 충분히 키울 그릇이 되어 주었다.

부평에서 유년 시절을 보낸 나에게 캠프마켓은 당연한 존재였고, 어릴 때부터 꿈꾸었던 은행원이 되기 위하여 서울에 있는 경기상업고등학교에 진학했다. 그러나 이후 고대 법대에 편입학해 사법 시험에 합격했다. 그렇게 평소 목표로 삼았던 검사직이었으나 검사시보 시



1989년 월미도 문화의거리 개장 당시 모습



1982년 초봄의 동인천역 풍경



두만강학원 설립 협약식에서 조동성 인천대 총장, 김웅 연변대 총장과 함께(사진 가운데)

최용규 인천대학교 이사장은 충남 서천에서 태어나 중학교 때 가족이 인천으로 이사 온 뒤 줄곧 인천 사람으로 살아왔다. 사법시험 합격 뒤 검사가 되고자 했으나 제도권 문화가 싫어 이후 정치인으로 방향을 돌려 인천 발전과 바른 정치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연변대 개교 70주년 기념식

절 차장검사와의 충돌 이후 다시 인천에 돌아와 변호사 활동을 시작한 것이 1988년이다. 서울 생활을 시작한 지 18년 만의 일이었다. 인천에 터를 잡은 지 약 2년쯤 지나자 길에서 “용규 아니냐? 오랜만이다” 하는 친구들을 만나면서 역시 인천은 내 고향이구나 하는 편안함을 회복할 수 있었다.

정의감이 넘쳐나던 청년 변호사에게 1990년 한보그룹의 수서 사건은 사회정의에 대한 깊은 아쉬움을 줬고, 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인천시의원에 당선됐다. 1994년 북구청 세도 사건을 보며 내가 사는 지역의 비참함을 바로잡고자 민주당에 입당하면서 구청장으로 출마해 전국 최연소 구청장으로 당선되며 내 속에 내재한 정의감을 마음껏 발산하기에 이르렀다.

국회의원을 하면서 사회보호법 폐지(청송보호감호소 폐지), 친일재산환수법 제정 등 평소 꿈꾸던 일을 마치고 나니 더 이상 국회에 있을 이유가 없어져 2008년에 불출마 선언을 하고 우크라이나에 버려진 동포들을 돕기 위하여 우크라이나에 가서 양파 사업을 추진했다. 평소 대한민국이 건국 이래 동포들을 제대로 보살피지 못한 나라라는 생각에 대한 개인적 실천이었다.

이후 주변의 권유로 인천대학교 이사장에 취임했고 와서 보니 인천대가 연변대학교와 중국 훈춘에 합작대학 설립을 추진하고 있었다. 내가 지난 12년 동안 농업을 통하여 유라시아 동포들을 돕고자 하던 일의 결정체가 여기에서 무르익고 있었던 것이다.

내 소망은 각지에 흩어져 있는, 뛰어난 농업 DNA를 갖고 있는 우리 동포들을 교육시켜 양파 재배와 판매로 유라시아 농산물 시장을 석권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 동포들이 해당 국가에서 주류 사회에 진입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더 나아가 훈춘에 설립하는 합작대학에 북한의 대학을 참여시켜 학술 교류는 물론이고 겨울 양파를 재배하게 해 북한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고 통일을 앞당기는 그런 대학으로 인천대학교를 만들고 싶은 것이 내게 던져진 숙제다. 나는 지금도 꿈을 꾸고 있다.

2020 July

07

Culture Calendar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와 ‘생활 속 거리 두기’ 참여로 중단됐던 일부 공연 및 전시가 재개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안전 수칙에 따른 안전한 관람을 부탁드립니다.
※ 코로나19 확산 방지 노력에 따라 취소 또는 연기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에 꼭 확인 후 관람 부탁드립니다.

이달의 전시

시간을 담은 음식
7월 5일(일)까지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제16회 인천서예전람회전
7월 17일(금)~23일(목)
인천문화예술회관 대·중앙·소전시실

제10회 청로조형예술협회
국제예술교류전
7월 24일(금)~30일(목)
인천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

이반디 개인전
7월 24일(금)~30일(목)
인천문화예술회관 중앙전시실

‘사진’ 공간을 열다
7월 24일(금)~30일(목)
인천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제29회 인천수채화아카데미전
7월 24일(금)~30일(목)
인천문화예술회관 미추홀실

이발소 풍경
8월 23일(일)까지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이달의 공연

04 토

온라인 로멘티카아르페
‘신바람 집시 재즈’
인천문화예술회관 유튜브 채널
오후 7시 30분
☎ 032-420-2731

유진아 오르간 독주회
엘림아트센터 엘림홀
오후 7시 30분
전석 2만원
☎ 032-289-4275



05 일

김홍준 바이올린 독주회
엘림아트센터 엘림홀
오후 4시 30분
전석 1만원
☎ 032-289-4275

08 수

온라인 2020 클래식 시리즈 II
한수진&김태형 듀오콘서트
인천문화예술회관 유튜브 채널
오후 7시 30분
☎ 032-420-2737

09 목

살롱콘서트 ‘휴’(休, HUE) - 정밀아
인천문화예술회관 복합문화공간
오후 7시 30분
무료(사전 예약 선착순)
☎ 1588-2341

어린이 퓨전 연희극
‘도깨비와 놀당갑서’
학산소극장
9~10일 오전 10시, 11시(단체)
11일 오후 4시(개인)
전석 1만원
☎ 032-866-3993

유모차 콘서트
엘림아트센터 챔버홀
오후 3시
무료
☎ 032-289-4275



11 토

온라인 인천시립무용단
‘건너편, Beyond’
인천문화예술회관 유튜브 채널
오후 5시
☎ 032-420-2788

온라인 인천원드오케스트라
‘시민을 위한 열린음악회’
인천문화예술회관 유튜브 채널
오후 7시 30분
☎ 032-420-2731

12 일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힐링 클래식 콘서트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6시
초대
☎ 032-888-0808

명곡 시리즈1
엘림아트센터 엘림홀
오후 4시 30분
전석 1만원
☎ 032-289-4275



14 화

피아니스트 정재원의 ‘밤의 가스파르’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 30분
전석 2만원
☎ 02-920-7887

16 목

살롱콘서트 ‘휴’(休, HUE)
- CR태규&씨 없는 수박 김대중
인천문화예술회관 복합문화공간
오후 7시 30분
무료(사전 예약 선착순)
☎ 1588-2341

클래식 유럽여행 콘서트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8시
전석 2만원
☎ 010-2315-4434

명작 단편소설 뮤지컬
‘열쑈’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오전 10시 30분
오후 2시 30분
전석 2만원
☎ 032-500-2000



17 금

온라인 인천시립교향악단
제389회 정기연주회
‘작곡가 집중탐구 - R. 슈트라우스’
인천문화예술회관 유튜브 채널
오후 7시 30분
☎ 032-420-2781

뮤지컬 ‘팬레터’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17일 오후 8시
18일 오후 3시·7시
19일 오후 2시
VIP석 8만8,000원, R석 7만7,000원
S석 6만6,000원, A석 4만4,000원
☎ 1688-6675

18 토

어린이 뮤지컬
렛잇고 2 ‘엘사의 겨울왕국’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18일 오전 11시, 오후 2시·4시
19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전석 4만4,000원
☎ 02-555-0822

온라인 전통음악의 집 락궁
‘Play in the 樂’
인천문화예술회관 유튜브 채널
오후 7시 30분
☎ 032-420-2731

19 일

앙상블 토니카
엘림아트센터 엘림홀
오후 4시 30분
전석 1만원
☎ 032-289-4275



21 화

인천청소년교향악단
제35회 정기연주회
‘인천의 하모니’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전석 1만원
☎ 032-888-0808

22 수

2020 커피콘서트 V
인천시티발레단
‘해설이 있는
발레콘서트’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전석 1만5,000원
☎ 1588-2341



23 목

제3회 시민과 함께하는
효(孝)국악한마당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6시
무료
☎ 010-6296-5067

살롱콘서트 ‘휴’(休, HUE)
- 철수x규규&윤영권x최무선
인천문화예술회관 복합문화공간
오후 7시 30분
무료(사전 예약 선착순)
☎ 1588-2341

24 금

대중음악 속 클래식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 30분
전석 1만원
☎ 032-424-7117

25 토

2020 포레스텔라 콘서트 - 인천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VIP석 13만2,000원, R석 11만원
S석 8만8,000원, A석 5만5,000원
☎ 1566-6551

제5회 라온피아스트라 정기연주회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6시
전석 1만원
☎ 032-434-7333

26 일

Summer night classic concert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6시
초대
☎ 032-888-0808

김은성
파이프 오르간 독주회
엘림아트센터 엘림홀
오후 4시 30분
전석 1만원
☎ 032-289-4275



29 수

꿈꾸는 가야금 ‘소리를 그리다’
학산소극장
오후 7시
무료
☎ 032-866-3993

30 목

살롱콘서트 ‘휴’(休, HUE)
- 앙상블 셋&오혜영x김마스타
인천문화예술회관 복합문화공간
오후 7시 30분
무료(사전 예약 선착순)
☎ 1588-2341

브런치 콘서트
이금희의 ‘동화뒷담’
- 신데렐라 편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오전 11시
전석 2만원
☎ 032-500-2000



IMAGE NEWS

01

시민을 위한
정의



#오직 시민만 생각하며 #시민을 중심에 둔
#시민을 위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더욱 공정한 정책으로 #시민께 보답하겠습니다.

02

귀 기울이는
소통



#먼저 말하기보다 #먼저 들었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소통 행정으로
#성심을 다해 답하겠습니다.

03

모두가 행복한
협치



#인천의 주인은 시민이기에 #인천을 시민께
돌려드렸습니다 #원도심과 신도시 #모두가 행복한
#열린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04

미래를 향한
혁신



#인천의 저력과 #잠재력을 믿기에 #용기 있게
도전했습니다 #보다 나은 내일을 약속하며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

※ 어르신 독자를 위한 큰 글씨 요약 뉴스 페이지입니다

더 크게 보고, 더 공감하는

인천 뉴스 +

- + 우리 시는 5,641억원을 들여 2022년까지 여의도 2.1배 크기인 6.18km² 면적에 48개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의 실시 계획 인가를 완료했다.
- + 우리 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급식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중식을 제공한다.
- + 주거용지와 테마파크 용지 비율을 축소한 인천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 변경안이 지난 6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 승인을 받았다.
- + 우리 시는 전국 최초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치료를 위해 격리될 경우 환자가 키우던 반려견을 맡길 수 있는 임시 보호소 10개소를 운영한다.
- + 우리 시는 올해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낚싯배에 구멍뚫목을 반드시 구비해야 하는 법이 시행됨에 따라 구멍뚫목 설치비를 지원한다.
- + 우리 시는 태풍, 호우, 지진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풍수해 보험 가입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NEWS BRIEF

온라인으로 ‘인천 시민시장 대토론회’ 개최

우리 시는 7월 1일 인천시청 중앙홀과 온라인 화상토론 방에서 ‘코로나19가 바꾼 세상, 새로운 인천!’이라는 주제로 ‘인천 시민시장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시민시장 토론회는 비대면 사회로의 급격한 변화를 가져온 코로나19 이후의 삶에서 가장 우선해야 할 인천시의 주요 정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시민과 함께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선 7기 들어 새롭게 추진된 대규모 시민 원탁토론회인 ‘인천 시민시장 대토론회’는 올해 3년째로 매년 300~500명 규모의 시민이 참석하는 원탁토론으로 진행되어 왔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오프라인 50명의 제한된 신청을 접수했는데, 접수 시작 3일 만에 선착순 마감되는 등 시민들의 소통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이번 토론회는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2019년 하반기 토론회 우수 제안자에 대한 표창과 인천시장의 ‘민선 7기 인천시의 전반기 시정’에 대한 성과와 정책방향 보고가 있다. 이어서 인천연구원의 ‘Next Normal 시대, 인천의 목표와 과제’ 발제 후 온라인 화상토론방을 중심으로 시민시장들의 집중 토론이 진행된다. 시 시민정책담당관실 032-440-2183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 생수 6만 병 전달

인천상수도사업본부는 지역 선별진료소 30곳에 350mℓ 짜리 미추홀참물(생수) 6만 병을 지원한다. 상수도사업 본부는 무더위에 두꺼운 보호복을 입고 근무하는 선별진료소 관계자들을 응원하기 위해 미추홀참물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6월 9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중학교 선별진료소에서 보건소 직원 3명이 무더위에 검사 업무를 하다가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다. 시 상수도사업본부 032-720-2023

코로나 사각지대 결식아동 1,000명에 중식 제공

우리 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급식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중식을 제공한다. 시는 이를 위해 제2회 추경에 7억원을 편성해 전액 시비로 급식을 지원한다.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격일·격주 등교 수업이 이뤄져 주 5일 무상급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결식아동이 1,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원 방식은 급식카드, 도시락 배달 등으로 한 끼당 5,000원 상당이다. 코로나19로 긴급복지 등 급식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또 시는 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지역아동센터 긴급돌봄 이용 아동 중 학교 결식아동 지원 대상이 아니더라도 중식을 제공받지 못한 모두를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시 아동청소년과 032-440-2857

희망업체 대상 코로나 검사비 50% 지원

우리 시는 ‘코로나19’ 감염의 조기 발견과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해 근로자 10인 이상 기업체의 표본검사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역 소재 희망 기업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인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근로자 10인 이상 기업체면 어디나 가능하다. 신청이 접수되면 위탁 의료기관에서 검사 일자, 시간, 장소 등을 정해 방문 진단검사를 한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주기적 환기 곤란, 작업자 간 거리 2m 미만 등에 해당하면 인근 사업장과 연계해 신청할 수 있다. 시 일자리경제과 032-440-3262

9월부터 지구단위계획 3차원 공간정보서비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오는 9월부터 3차원 공간정보서비스를 통해 지구단위계획 상세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구단위계획은 획지 단위로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정한 도시관리계획이다. 서비스가 시작되면 경제청 3차원 공간정보서비스 사이트(3dgis.ifez.go.kr)에 접속해 주소를 입력하거나 위치를 선택하면 지구단위계획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032-453-7183



강화해안순환도로 4·1공구 착공

우리 시는 행정안전부 ‘접경지역발전 종합계획’에 반영된 강화해안순환도로 4공구 중 1단계로 창후리 선착장부터 인화리 교동대교 입구 구간의 우선 착공을 위해 지난 6월 24일 하점면 창후리 선착장에서 기공식을 개최했다. 강화해안순환도로는 지난 2007년 11월 광역시도 64호선으로 승격됐으며, 전체 84.4km 구간 중 미개설 구간은 4, 5공구 약 20km이다. 시 도로과 032-440-3774

인천시청도 ‘전자출입명부’(KI-Pass) 운영

우리 시는 지난 6월 17일부터 본청 및 시의회에 전자출입명부(KI-Pass)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전자출입명부 도입에 따라 시청 및 의회 방문자는 모두 개인 QR코드를 발급, 스캔 후 출입해야 한다. 다만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수기 방문 대장도 병행해 운영한다. 전자출입명부는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지원 시스템과 직접 연계되어 있어, 시청사 내 확진자 방문 등의 경우 즉각적인 접촉자 파악이 가능해 신속한 방역에 효과적이다. 시 총무과 032-440-2658

인천로봇랜드 조성사업 본궤도 올라



사업자 선정 후 13년간 표류하던 인천로봇랜드 조성사업이 정상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주거 용지와 테마파크 용지 비율을 축소한 인천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 변경안이 지난 6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 승인을 받았다. 우리 시는 사업계획 변경안 승인에 따라 내년까지 로봇랜드 마스터 플랜 용역, 기반시설·공익시설 설계 용역을 거친 뒤 2022년 착공,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7,124억원을 들여 서구 원창동 76만 9,000㎡ 사업 부지에 로봇타워, 로봇연구개발센터, 로봇테마파크를 건립하며 4차 산업혁명과 첨단 신기술을 접목한 로봇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방침이다. 시 미래산업과 032-440-3108

저소득층에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공사 지원

우리 시는 에너지 취약계층 1,280가구를 대상으로 단열공사, 창호공사, 보일러 교체, 바닥공사 등 에너지효율 개선을 지원해 에너지 사용 환경을 개선하고 에너지 소비를 줄여 따뜻한 겨울,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신청 기간은 한국에너지재단의 예산 소진 시까지로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 가능 여부 확인을 거쳐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이후 한국에너지재단에서 대상 가구를 방문해 조사 및 컨설팅으로 지원 가구를 선정한다. 한국에너지재단 콜센터 1670-7653



낙시어선 구명뗏목 설치비 지원

우리 시는 올해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낙시배에 구명뗏목을 반드시 구비해야 하는 법이 시행됨에 따라 구명뗏목 설치비를 지원한다.

개정된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에 따르면 승선 인원이 13명 이상인 낙시어선은 구명뗏목을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시는 1억6,000여 만원을 들여 웅진군을 제외한 관내 낙시어선 42척에 한 척당 최대 400만원(자부담 40% 포함)을 구명뗏목 설치비로 지원할 예정이다.

시 수산과 032-440-4864

전국 최초 ‘확진환자 반려견 임시보호소’ 운영

우리 시는 전국 최초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치료를 위해 격리될 경우 환자가 키우던 반려견을 맡길 수 있는 임시보호소 10개소를 운영한다.

임시보호소 이용 절차는 관할 보건소로부터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통지서를 받은 시민이 반려견에 대한 임시보호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관할 군·구의 동물보호 담당부서에서 반려견을 인수한 다음 임시보호소로 이송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보호 비용은 1일 기준 3만 5,000원으로 입소 기간 중 질병 발생 시 치료 비용은 추후 가산될 수 있다.

시 농축산유통과 032-440-4379

모기 발생 정보 실시간 모니터링 가동

보건환경연구원은 모기 발생 정보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군·구별 인구와 면적 등을 고려해 인천 내 80개 지점을 선정하고 지난 5월부터 자동 모기계측기를 운영하며 모기 발생 자료를 실시간으로 보건소에 전달하고 있다. 연구원은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과 뎅기열 등 모기 매개 감염병이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점을 고려,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기반으로 대응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보건환경연구원 032-440-5445



2022년까지 여의도 2배 면적 도심 숲 조성



우리 시가 여의도 2배 크기의 도심 숲 조성을 위한 행정 절차를 마쳤다. 시는 5,641억원을 들여 2022년까지 여의도 2.1배 크기인 6.18km² 면적에 48개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했다.

이번 실시계획 인가는 7월 1일 시행을 앞둔 공원 일몰제에 대비한 조치로, 도시공원으로 지정되고도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상태로 있는 녹지는 공원 일몰제 시행 이후에는 공원 용도를 잃게 된다.

시는 작년 2월 ‘인천광역시 공원확충계획’을 수립하고, 총 5,64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022년까지 48개소 6.18km²의 공원 조성을 목표로 세웠다. 2022년 사업이 마무리되면 인천의 1인당 공원 면적이 현재 11.7m²에서 12.9m²로 늘어나 특·광역시 중에서는 세종시에 이어 2위를 기록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 공원조성과 032-458-7047

개발제한구역 해제 36곳 미집행 기반시설 재검토

우리 시는 2006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뒤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 중인 36개 구역(204만m²)의 미집행 기반시설을 재검토해 연말까지 계획을 폐지·변경할 예정이다. 이들 지역은 2012년부터 기반시설계획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됐지만 현재까지 도로 75%, 공원 92%, 주차장 98%가 미집행 상태다. 시는 이들 기반시설계획의 필요성과 활용도 등을 전면 재검토해 폐지·변경하고 시민에게 필요한 시설을 제때 조성할 방침이다.

시 도시균형계획과 032-440-4633

재난 대비, 풍수해보험 가입하세요

우리 시는 태풍, 호우, 지진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주민은 소액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정책 보험으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로부터 시민 스스로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익한 보험이다. 특히 올해부터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시설·기계 포함) 및 재고자산까지 가입 대상이 확대되어 더 많은 시민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풍수해보험 가입은 해당 군·구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가 비치되어 있으며 가입 문의는 해당 군·구 재난관리 부서 또는 민영 보험사로 문의하면 된다.

시 자연재난과 032-440-3358

국내 최고 높이 ‘청라시티타워’ 경관심의 통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6월 11일 송도 G타워에서 열린 12차 경관위원회에서 청라시티타워 경관 안전이 조건부 의결로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청라시티타워는 청라호수공원 3만3,000m² 터에 지하 2층, 지상 30층, 연면적 9만6,000m² 규모로 건설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착공했으며 2023년 완공을 목표로 4,158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높이는 448m로 현재 국내 최고 높이의 전망 타워인 남산 서울타워(236.7m)의 약 2배에 달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032-453-7613



폭염 대비 선별진료소 운영 시간 단축

우리 시가 의료진의 안전을 위해 지난 6월 15일부터 선별진료소 운영 시간을 단축했다. 우선 기온이 가장 높은 낮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선별진료소 운영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고, 의료진의 휴식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사전예약제를 도입했다. 또 의료기관과 보건소 선별진료소 29곳에 모두 냉방기를 설치하고, 일회용 방수성 가운을 착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시 대변인 032-440-3075

경유 자동차 배출가스 연말까지 특별점검

우리 시는 미세먼지로 나빠진 대기질을 개선하고자 올해 연말까지 경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점검에 나선다. 이번 특별점검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항만·공항·수도권매립지에 진출입하는 차량과 공공기관 및 버스업체에서 보유 중인 경유 자동차 1,619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점검 결과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차량 정비·점검 안내 및 개선 명령을 조치할 계획이다.

시 대기보전과 032-440-3555

내년 말 센트럴파크에 전기 수상택시 운행

내년 연말쯤이면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송도국제도시의 대표적인 휴식공간인 센트럴파크에서 전기로 가는 수상택시를 탈 수 있다. 경제청은 15억3,000만원을 들여 45인승 규모의 전기 수상택시를 건조해 내년 말 센트럴파크 수로에서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경제청은 현재 센트럴파크 수상택시 3대가 모두 디젤기관을 추진 동력으로 하는 선박이어서 이산화탄소와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 배출과 소음·진동 등 환경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 전기 수상택시 도입에 착수했다. 친환경 전기 수상택시는 기존 수상택시보다 2배 정도 비싸지만, 소음·진동 등 선체 저항 감소로 연료 효율이 높고 승선감이 좋다는 평가를 받는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032-453-7913

COUNCIL NEWS

코로나19 의료진 및 관계 기관 격려 방문



인천시의회의는 지난 6월 4일 오후 인천시의료원과 인천 시보건환경연구원을 방문해 코로나19 최일선 현장에서 수고하는 의료진과 관계 공무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격려 방문에서 인천시의회의 의장은 “300만 인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인천시의회도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역경제선순환연구회’ 주관 세미나 개최

인천시의회의 의원연구단체인 ‘지역경제선순환연구회’가 지난 6월 17일 기획행정위 세미나실에서 ‘충남 경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조찬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역경제선순환연구회는 인천지역 경제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 시의회 차원에서 분석과 해결방안을 찾고자 결성한 연구단체다.

인천시의회의는 조찬 세미나를 마친 후 “1인당 GRDP가 17개 시도 중 2위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소득과 소비의 역외유출이 심해 1인당 개인 소득은 12위에 머무르고 있어 인천과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는 충남 경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들어봄으로써 우리 인천 경제를 점검해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인천시의회의 의원 6인, 인천의정대상 수상

인천시의회의 의원 6명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8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시의회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된 김종인(민주, 서구3), 남궁형(민주, 동구), 이용선(민주, 부평3), 임동주(민주, 서구4), 조광휘(민주, 중구2), 조선희(정의, 비례) 의원이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8회째인 우수의정대상은 국내 광역시도의회 17개로 구성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소속 광역의원을 대상으로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지방자치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공헌한 의원들에게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산업경제위, 성산가압장 현장 방문

인천시의회의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6월 2일 ‘성산가압장~마곡동 도수관로 정비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인천 시상수도사업본부가 오는 9월 준공을 목표로 2016년 5월부터 시행 중인 도수관로 복선화 공사는 서울시 영등포구 양화동 성산가압장에서 강서구 마곡동에 이르는 총 4.08km(구경 1,800mm) 구간에 총사업비 515억 6,700만원을 투입해 진행 중이다. 산업경제위원회는 “노후 도수관로 복선화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해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복위, 복지관·박물관 등 현장 방문



인천시의회의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6월 11일 연수구 함박종합사회복지관과 인천시립박물관, 인천상륙작전 기념관을 현장 방문해 운영 전반에 대한 추진현황 및 현안사항을 청취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관련 대응책으로 사회복지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 시민과 밀접한 기관들의 휴관이 잇따르자 취약계층 보호방안, 방역체계 등 재개관 시 시민의 안전 및 제반 사항을 점검, 확인하고 현장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이뤄졌다.

의정발전자문위원회 기획행정분과 회의 개최

인천시의회의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6월 18일 시의회 기획행정위 세미나실에서 ‘인천광역시의회 제4기 의정발전자문위원회 기획행정분과 회의’를 개최했다.

의정발전자문위원회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의정활동을 자문·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위원회다. 한편 제4기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임기는 지난 6월 30일로 만료됐으며, 후반기 원구성 이후 제5기 의정발전자문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이다.



코로나19 이후 인천의 경제여건 변화와 대응방안 마련 토론회

인천시의회의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6월 3일 시의회 기획행정위 회의실에서 ‘코로나19 이후 인천의 경제여건 변화와 대응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하운 경제특별보좌관은 발제를 맡아 ‘코로나19 이후 경제여건 변화와 대응 과제’라는 주제를 발표했고, 토론자로는 강원모 산업경제위원회 의원, 조승헌 인천연구원 연구위원, 장병현 인천시 일자리경제과장, 이병태 인천시 소상공인정책과장, 이남주 인천시 산업진흥과장, 김준성 인천시 미래산업과장이 함께했다. 또 시의회의원, 시민단체, 시민, 시 공무원 등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는 장으로 진행했다.

‘2020 인천항공 MRO&PAV 산업 발전전략’ 토론회

지난 6월 12일 오후 인천시의회의 세미나실에서 ‘2020 인천항공 MRO·PAV 산업 발전전략 토론회’가 열렸다. 인천시의회의 ‘공항경제권 정책연구회’가 주최한 이 자리에는 인천시의회의 의원, 인천시 관계부서 직원을 비롯해 인하대, 연세대, 항공업계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세계적인 공항을 보유한 인천시는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항공정비단지(MRO)를 유치하고 개인항공기(PAV) 기술을 개발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이와 관련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효율적인 정책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의회저널> 구독 안내



더욱 자세한 의정 활동 소식은 <인천의회저널>에서 확인하세요. 신청하신 모든 분께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인천의회저널>에는 역사, 관광, 지역 소식까지 생생한 정보가 가득합니다.

문의 의회사무처 ①032-440-6137~8 ②www.icouncil.go.kr

인천 작가의 손끝에서 탄생한 인천의 이야기, 인천 시민 여러분의 색으로 채워주세요.

인천이 그리다 인천을 그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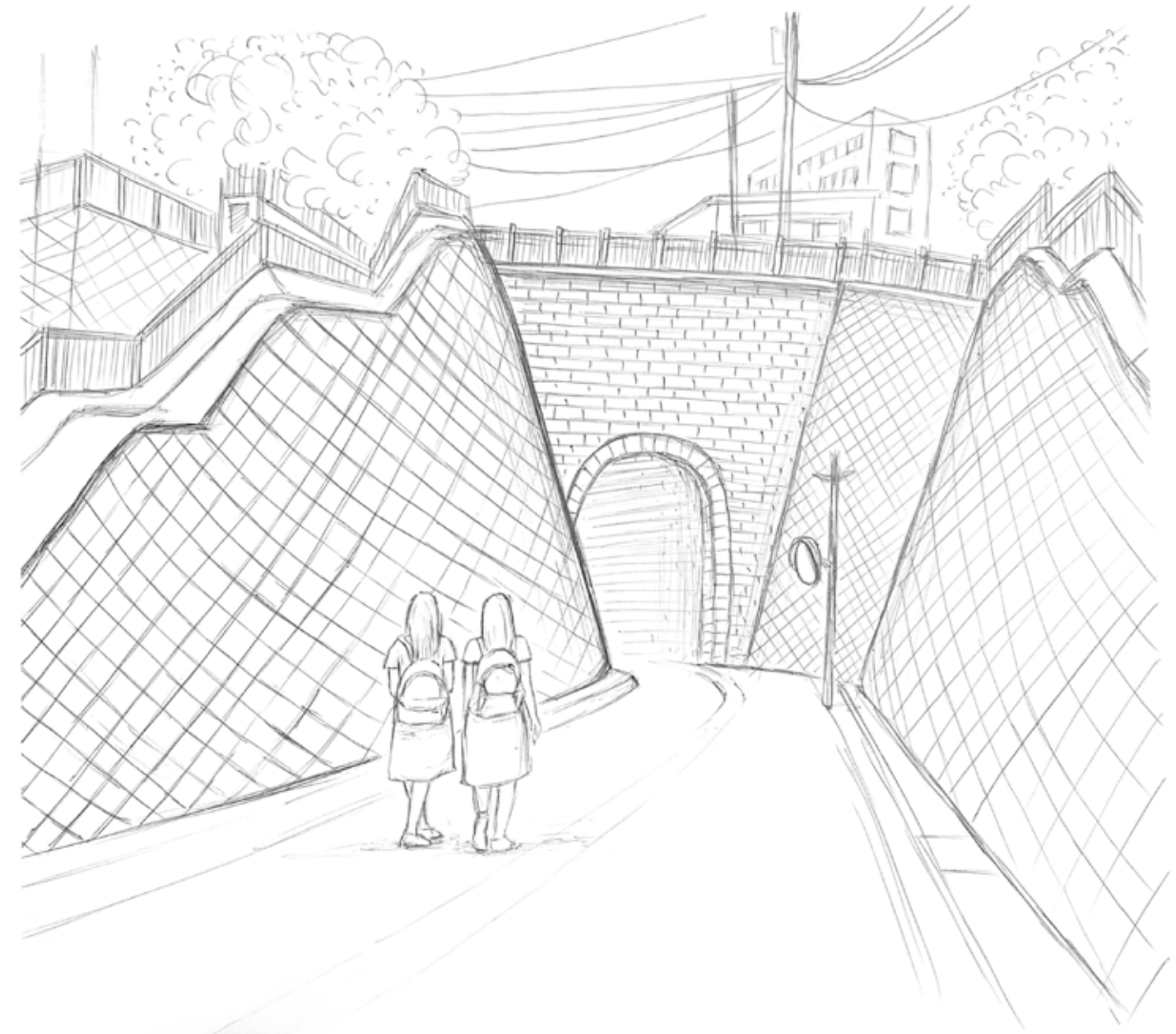
작가의 말

골목골목, 거리거리가 모두 추억

홍예문은 윗부분을 무지개 모양으로 반쯤 둥글게 만들었다 하여 무지개문이라고도 불리었다. 어느 겨울 첫눈이 폴폴 내릴 즈음, 교복을 입은 소녀는 친구와 둘이서 소곤소곤 우정을 나누며 응봉산 산허리 홍예문길을 걸었다. 가슴 벅찬 설렘도 함께였다. 인천은 골목골목, 거리거리마다 정감이 살아 넘치는 곳이다. 가끔 겨울 철새와 갈대를 만나러 소래 염전을 둘러보기도 했던 예전의 기억들을 떠올리며, 그렇게 지금의 인천에 굳건히 뿌리내리려 한다.



소래의 기억, Acrylic on canvas, 40.5x27.5cm



그림의 선을 따라 드로잉한 후 채색해 보세요. 두 배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6월 드로잉 인천 시민 작가를 소개합니다!



손유나 연수구 용담로



장애리 미추홀구 매소홀로



유시우 미추홀구 수봉로



정시은 남동구 호구포로



김화정 계양구 길마로

컬러링 작품을 보내주신 시민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드로잉 인천’ 보내는 방법

- 1) 우편 : 우)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청 소통기획담당관실 <굿모닝인천> 독자마당 담당자 앞
- 2) 이메일 : goodmorningic@naver.com
- 3) 기간 : 2020년 7월 20일까지

문의 032-440-8305

※ 응모하실 때 성명과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주소를 꼭 남겨주세요.



이달의 드로잉
서정미 작가

덕성여대 서양화과를 졸업했다. 8회에 걸친 부스 및 개인전을 열었으며 그 외 다수의 단체 그룹전에도 작품을 출품했다. 한국미술협회, 인천미술협회, 환경미술협회, 인천여성작가연합회 등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연구수에 화실을 열어 시민들과도 호흡하고 있다.

INFO BOX

인천의 문화 행사, 공연, 강좌 등 알찬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인천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확산 방지 노력에 따라 일정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에 꼭 확인 후 참여 부탁드립니다.

㉠전화 ㉡홈페이지 ㉢이메일 ㉣팩스

01 토론 Talk Talk, 당신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시민의 일상과 관련된 우리 시 정책 중 시민 의견 수렴이 필요한 의제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온라인 정책 담론장 ‘토론 Talk Talk’에 참여하세요.

토론 주제: 반려동물 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것은 어떨까요?
토론 기간: 7월 19일까지
참여 방법: 온라인 찬반 투표 및 댓글 토론
참여 자격: 시민 누구나
참여 방법: ㉠ www.incheon.go.kr
문의: 시 시민정책담당관실 ㉠ 032-440-2418

02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인향초중고등야간학교에서 초·중·고등 과정을 배울 학생들을 모집합니다.
* 초등 과정은 한글반과 병행 지도
* 8월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대비 수업 진행
수업 시간: 월~금요일 오후 6시 30분~9시
원서 접수: 연중 상시 모집
* 평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접수
* 토·일·공휴일은 휴무
제출 서류: 입학 원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여권 사진 3매
문의: 인향초중고등야간학교 ㉠ 032-772-4061

03 당신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인천광역시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여성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경력 단절 예방·극복 우수 사례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공모 주제: 여성 경력 단절 예방 및 극복 관련 개인 또는 기업의 사례
공모 부문
* 개인: 경력 단절을 예방·극복한 재직 여성의 후기
* 기업: 여성 근로자의 경력 단절 예방·극복을 지원한 기업의 후기
공모 기간: 7월 1일~8월 5일
대상: 시민 누구나
접수 방법: ㉠ www.ifwf.or.kr 서식 다운로드 후 ㉢ 2016saeil@daum.net 제출
문의: 인천광역시여성새로일하기센터 ㉠ 032-517-9836

04 청년의 생각이 정책이 됩니다

우리 시와 함께 청년 문제를 주체적으로 고민하며 해결해 나갈 ‘제2기 인천 청년 네트워크 위원’을 모집합니다.
신청 기간: 7월 14일 오후 6시까지
모집 대상: 인천 내 거주 또는 활동하는 만 19세~39세 청년 50명
신청 방법: ㉢ aijoajin@korea.kr 또는 방문
활동 기간: 위촉일~2021년 12월 31일
활동 내용: 청년 정책 발굴 및 제안, 청년 관련 행사 참여 등
지원 사항: 회의 참석 수당 지급, 시정 참여 확인서 발급, 활동 우수자 표창
문의: 시 청년정책과 ㉠ 032-440-2888

05 소금처럼 깨끗한 사회를 만들어요

소금 사업의 발전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품질 좋은 소금을 공급하고자 ‘소금산업진흥법’ 위반 관련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합니다.
소금산업진흥에 관한 위반 신고 대상
* 식용 천일염 생산 금지 해역에서 식용 천일염 생산을 목적으로 염전을 개발하거나 식용 천일염을 생산한 자
* 염전에서 천일염이 아닌 소금 또는 소금을 혼합하는 방법 등으로 천일염을 생산하는 자
* 소금 제조업 등의 허가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는 행위를 한 자 등 소금산업진흥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 등
관련 법령: ‘소금산업진흥법’ 제29조 제2항 및 제49조, 제50조 및 제51조
신고 포상금: 200만원 이내 지급
지급 절차: 신청서 작성, 제출 → 접수, 구비 서류 및 관련 사항 검토 → 포상금 지급
문의: 시 천일염 담당 ㉠ 032-440-4883

06 만성 질병, 스스로 극복해요

인천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지원단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유쾌한 고혈압·당뇨 자가 관리 방법 UCC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응모 자격: 시민 누구나(개인 또는 단체)
응모 기간: 6월 15일~7월 31일
주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유쾌한 고혈압 및 당뇨 자가 관리 방법
작품 규격: UCC(2분 30초~30분 이내)
지원 방법: ㉢ snowmy@hanmail.net
시상: 최우수상 1편 120만원, 우수상 2편 각 60만원, 장려상 2편 각 30만원
문의: 인천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지원단 ㉠ 032-860-8218

07 청춘을 노래합니다

60세 이상 어르신들로 구성된 동아리 ‘알프스요들마마파파’ ‘연수시니어합창단’의 공연이 펼쳐집니다.
일시 및 장소: 7월 11일(연수구 연수문화공원 야외 무대), 18일(미추홀구 옛 시민회관 쉼터 야외 무대) 오후 4시~5시
관람료: 무료
문의: 연수문화원 ㉠ 032-821-6229

08 초록빛 인천을 영상에 담아주세요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에서 ‘시민이 함께 그린 (Green), 인천’ 시민 영상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공모 주제: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시민 아이디어 공유
공모 기간: 7월 10일까지
참가 자격: 시민 누구나(개인 또는 팀)
참가 신청서: ㉠ www.incheon.go.kr ㉡ www.incheonsamo.or.kr
응모 방법: ㉢ iloveincheon@hanmail.net
* 촬영한 영상을 개인 SNS 계정에 업로드 후 URL을 명시한 참가 신청서와 영상 파일 제출
* SNS 필수 해시태그 #인천 #그린인천 #인천사랑
문의: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 032-439-0493~5



09 책 읽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새마을문고중앙회 인천광역시지부에서 ‘대통령기 제40회 국민독서경진대회’를 주관합니다.
모집 부문: 독후감(단체, 개인), 편지글(개인)
* 도서는 자유 선정(생명 살림, 평화 나눔, 공경 문화 권장)
* 원고지 및 자필로 작성한 작품 우대
응모 규격
* 독후감: 초등부 200자 원고지 6매 내외, 중·고등부 200자 원고지 10매 내외, 학생부 외 200자 원고지 12매 내외
* 편지글: A4 용지 2매 이내
제출 기간: 9월 30일까지
제출 방법: ㉢ gazebo1@saemaul.or.kr 또는 우편
특전: 독후감, 편지글 부문 최우수작은 중앙대회 진출, 교육감 표창, 인천시장 표창, 인천시의장 표창 등(지도 교사 포함)
문의: 인천광역시 새마을회 ㉠ 032-433-4054



10 무거운 짐을 덜어드립니다

우리 시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의 학업과 생활을 돕고자 ‘2020년 상반기 인천광역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 지원 대상
- * 한국장학재단에서 산정하는 소득 8분위 이하
 - * 부모 또는 본인 신청 기준일 현재 1년 이상 인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내 대학(교) 재학생 또는 휴학생
 - * 공고일 기준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 졸업생
 - *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대학생은 소득 제한 없음
- 지원 내용 :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출받은 2019년 1학기 대출분부터 지원 대상이며, 대출받은 학자금의 2020년 상반기(1~6월) 발생 이자 지원
- 신청 기간 : 7월 10일 오후 6시까지
- 신청 방법 : ㉠ lly3025@korea.kr
- 문의 : 시 교육협력담당관실 ㉠ 032-440-2173



11 어르신께 희망을 충전해 드립니다

- 우리 시에서 취약 계층 어르신에게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효드림 복지 카드’를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 만 75세 이상 어르신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 * 만 75세 기준 : 194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 거주 기준 : 신청일 현재 인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어르신
 - * 자격 기준 : 신청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 신청 기간 : 7월 10일~9월 29일
- 신청 방법 :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동거인(동일 주소),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읍·면·동) 방문
- 지원 금액 : 연 8만원(1회)
- 지원 방법 : 인천e음 카드(선불 충전 방식)
- 사용처 : 인천시 소재 건강, 식사, 위생, 여가, 전통문화 등 관련 가맹점
- 사용 기간 : 12월 31일까지(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
- 문의 : 시 노인정책과 ㉠ 032-440-2813

12 듣고 싶은 노래와 사연을 보내주세요

- 연수 프린지 페스티벌에서 라이브로 연주될 신청곡 및 사연을 모집합니다.
- 신청 기간 : 7월 1일~20일 오후 6시까지
- 신청 대상 : 연수구민
- 신청 주제 : 8월의 크리스마스(사랑), 나의 음악 앨범 (추억)에 어울리는 신청곡, 사연
- 신청 방법 : 연수문화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또는 ㉠ yeonsucc@daum.net
- 신청 특혜 : 사연 소개 및 신청곡을 클래식 앙상블 팀이 연주, 공연 당일 돗자리 및 다과 세트 제공
- 문의 : 연수문화원 ㉠ 032-821-6229



13 시민 사회 성장을 위한 한마당

우리 시에서 ‘성장하는 시민, 협치를 향한 동행’을 주제로 시민 사회 성장 한마당을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시민 공익 활동 주체로서의 마을 계획단 출범식]
- 일시 : 7월 10일 오전 10시~낮 12시
- 장소 : 샹펠드미앙
- 내용 : 마을 계획단 출범식, 오리엔테이션
- [행정과 동행하는 주체로서의 주민 자치회 발전 방향 토론회]
- 일시 : 7월 10일 오후 2시~6시
- 장소 : 샹펠드미앙
- 내용 : 주민자치회 발전 방향 토론

- [시민 공익 활동 확대 및 발전을 위한 ‘알찬 컨설팅&교육’]
- 일시 : 7월 13일~14일 오후 1시 30분~5시
- 장소 : 시의회 2층 기획위 세미나실
- 내용 : 법인 설립, 인사, 노무, 세무, 회계 등 전문가 컨설팅
- 문의 : 시 공동체협치담당관실 ㉠ 032-440-3392

14 영상과 만화로 평화를 이야기하세요

- 우리 시에서 서해 평화의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서해 평화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 공모 분야 : UCC, 웹툰
- 공모 주제 : 서해 5도 등 인천의 생태 환경, 경제, 관광, 교육, 역사, 문화 등 서해 평화와 관련된 내용
- 공모 자격 : 서해 평화에 관심 있는 누구나
- 접수 기간 : 8월 31일까지
- 접수 방법 : ㉠ www.서해평화공모전.com
- 문의 : 서해 평화 콘텐츠 공모전 운영사무국 ㉠ 070-4352-0400



15 연수문화원 문화·체험 프로그램 안내

- [오페레타 전문가 양성 심화 과정]
- 일시 : 8월 10일~11월 23일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오후 1시
- 장소 : 연수문화원
- 대상 : 시민 20명
- 내용 : 연구구의 향토 이야기를 소재로 한 오페레타 (작은 오페라) 공연을 위한 전문 교육 과정
- 모집 기간 : 7월 13일~선착순 마감
- 접수 방법 : 전화 및 방문 접수(청학문화센터 2층)
- 문의 : 연수문화원 ㉠ 032-821-6229

- [2020 전통 혼례식 지원]
- 일시 : 10월 31일 오전 11시
- 장소 : 원인재
- 내용 : 우리의 전통 혼례가 갖고 있는 고유의 가치를 널리 보급하고, 전통 생활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자 실제 결혼을 하는 주인공으로 전통 혼례식을 진행
- 신청 기간 : 9월 16일까지 선착순 접수
- 모집 대상 : 결혼 예정이거나 결혼식을 하지 못한 부부, 특별한 사연이 있는 부부, 지역의 소외계층 등 연수구민 3쌍
- 참가비 : 무료
- 문의 : 연수문화원 ㉠ 032-821-6229

16 인천 시정, 문자로 받아보세요

- 우리 시가 시민 여러분께 시의 정보를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희망하시는 분들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입 신청(수신 동의) 해주신 분에 한해 문자가 발송됩니다.
- 발송 대상 : 문자 수신 동의한 시민
- 발송 내용 : 인천시 주요 정책
- 신청 방법 : ㉠ www.incheon.go.kr(소통 참여-문자 알림 서비스-인천 알리미)
- 문의 : 시 소통기획담당관실 ㉠ 032-440-3042



17 우리 시 순환 버스의 이름을 지어주세요

- 우리 시가 교통 편의 제공을 위한 순환 버스 신설 계획에 따라, 순환 버스 명칭을 공모합니다.
- 공모 기간 : 7월 17일까지
- 공모 내용 : 우리 시 순환 버스의 특색을 잘 살릴 수 있고, 쉽게 부르고 기억할 수 있는 명칭
- 공모 자격 : 시민 누구나
- 응모 방법 : ㉠ www.incheon.go.kr(소통 참여-공모전)
- 공모 수량 : 1인당 1명칭
- 문의 : 시 버스정책과 ㉠ 032-440-3654

18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안내해드립니다

- 우리 시가 시내버스 노선 개편과 관련한 시민 설명회를 개최해 시민 의견을 접수합니다.
- 기간 : 7월 13일~17일
- 참석 대상 : 시민 단체, 시민 등(100명 이내)
- 발표자 : 서민호 총괄책임연구원 외(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외)
- 주요 내용 : 시내버스 노선 체계 개편 취지 소개, 시내버스 노선 개편 추진 현황 및 노선 개편(안) 설명, 질의응답 및 건의 사항 접수
- * 유튜브 등을 통한 인터넷 생방송 중계(댓글 가능)
- 문의 : 시 버스정책과 ㉠ 032-440-3950



인천 지명

산 넘고 물 건너,
무네미

관모산 기슭에 ‘수현水峴’이라는 작은 고개가 있다. 그대로 해석하면 ‘물고개’라는 뜻인데, 순우리말 이름인 ‘무너미고개’ 또는 이 말의 발음이 조금 바뀐 ‘무네미고개’를 한자로 바꾼 것이다. 무너미에 대해서는 흔히 조선 시대 운하 건설에 얽힌 전설을 들어 설명하곤 한다. 당시 이곳 무네미고개를 포함한 인천과 김포 세 곳에서 물길을 뚫어보려 했으나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 그때 어떻게든 ‘물길을 넘겨’ 운하의 길을 터보려고 했다고 하여 ‘무(물)너미’라는 이름이 생겼다는 것이다. 하지만 ‘무너미’라는 이름은 우리나라 곳곳에 있다. ‘무너미’뿐 아니라 ‘무네미’ ‘무내미’ 또는 서울의 ‘수유리水籬里’ 처럼 이를 한자로 바꾼 이름도 있다. 그런데 이런 곳들에는 운하 건설과 같은 전설이 없다. 따라서 이 이름은 국어학적

입장에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우리말 ‘무너미’는 대개 두 가지 뜻을 갖는다. 하나는 ‘물넘이’의 발음이 바뀐 것이다. 이는 강이나 바닷가 등지에서 ‘물이 넘어오는 곳’이나 ‘물 너머에 있는 곳’이라는 뜻이다. 또 하나는 ‘모넘이’의 발음이 바뀐 것이다. ‘모’는 ‘뫼’와 함께 산을 말하는 우리 옛말인데, 그 발음이 ‘무’로 바뀌어 쓰이기도 했다. 따라서 이런 경우의 ‘무너미’는 ‘산을 넘어가는 곳’이나 ‘산 너머 동네’ 정도의 뜻이 된다. 인천의 무너미는 이들 두 가지 모두로 해석이 된다. 첫째는 이곳 바로 앞에 장수천이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이 동네 근처에 관모산과 거마산 등의 작은 산들이 몇몇 있기 때문이다.

인천 소사

1981.07.01
인천직할시로 승격

300만 인구를 자랑하는 살기 좋은 도시 인천. 지금의 인천광역시라는 자랑스러운 이름을 얻기 전, 인천은 경기도에 속했다. 1981년 7월 1일, 직할시로 승격됐을 당시에도 면적 약 206km²로, 지금의 5분의 1에 지나지 않았다. 이후 지속적인 간척사업을 통해 몸집을 키웠으며, 1980~1990년대를 전후로 현재의 검단과 계양구 북부 등 주변 지역이 편입됐다. 1995년 지방자치제 시행 직전에는 정부의 직할시 광역화 정책에 따라 경기도 강화군과 옹진군까지 품에 안으며 오늘날 국내 최고의 광역시로 자리 잡았다.

그때, 7월의 인천은...

1879. 07. 01	인천에 화도진花島鎭, 부평에 연희진延喜鎭 신설
1939. 07. 01	인천관측소, 인천기상대로 개칭
1959. 07. 01	경인선, 제물포역 신설
1982. 07. 13	인천개항백주년기념탑 기공
1986. 07. 30	북인천우체국 개국
1989. 07. 02	월미도 문화의 거리 개장
1993. 07. 05	인천지하철 제1호선 기공식 거행
2005. 07. 11	인천항만공사 설립

불안과 용기, 그 사이

사연 이지숙(남동구 논현로)

지난 연말, ‘코로나19’란 낯선 단어가 검색어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내 바이러스의 공포가 국내에, 그것도 인천에 닿았습니다. ‘결혼식은... 괜찮겠지...’ 상황은 생각과 달리 흘러갑니다. 의료진의 고군분투, 국민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일 좋지 않은 소식으로 가득한 세상이 야속했습니다. 그렇게 ‘5월의 신부’는 꿈이 됐습니다.

더는 미룰 수 없었습니다. 새 날짜가 새겨진 청첩장이 봉투에 담겼습니다. 결혼식 당일 풍경은 인터넷에 떠돌던 모습과 다르지 않았습다. 하객들은 하나같이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눈치 없는 마스크는 피로연장까지 따라붙었고, 비닐장갑을 낀 채 식사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미안함이 밀려왔습니다. 한 명 한 명 빠짐없이 고개 숙여 인사하는 신랑을 본 순간, 머릿속에 다른 생각이 스쳤습니다. ‘미안해 하지 말고 감사해 하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인천에서 태어나 서른 넘게 인천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가 아닌 둘이기에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불안해 하지 말고, 오히려 용기 있게 이겨냈으면 합니다.



<사진과 사연을 보내주세요>

‘仁生 사진관’은 일상 속에서 겪는 다양한 삶의 모습을 사진으로 들여다보는 코너입니다. 인천을 무대로 살아가고 있는 시민 여러분의 사진과 사연을 보내주세요.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리며, 보내주신 사진을 실어드리거나 직접 찾아가 사진을 찍어드립니다.

보내실 곳 : goodmorningic@naver.com

문의 : 시 소통기획담당관실 032-440-8305

계양산과 민선 7기 2주년



© 사진 최준근

글 김진국 본지 총괄편집국장

산을 오르는 길은 철마다 새로웠다. 진달래가 피어나는
가 싶으면 연초록 이파리들이 부풀어 올랐고, 황갈색 낙
엽으로 바스락거리다 앙상한 가지 위로 눈이 쌓였다. 정
상에서 먹는 김밥이나 산을 내려와 등산로 초입 해장국
집에서 막걸리를 곁들인 아침 식사는 주말 최고의 ‘소확
행’이었다. 동행한 친구나 선·후배와 죽이 맞으면 낯설로
이어지기도 했다. 군 생활을 한 곳도 계양산 자락에 위치
한 부대였다. 점박이젤리처럼 생긴 도롱뇽 알을 찍으려
다 새로 산 휴대폰을 계곡물에 빠뜨렸던 순간, 롯데골프
장 건설을 반대하며 나무 꼭대기에 천막을 설치한 채 아
찔한 고공 시위를 벌이던 시민단체 사람들의 모습도 계
양산의 기억이다.
해발 395m. 계양산 정상에 서면 사방이 한눈에 들어온
다. 인천은 물론이고 서울·김포·부천·강화와 경기만 일대
를 360도 파노라마로 볼 수 있다. 삼국시대 사람들이 왜
이 자리를 차지하려 치열한 전투를 치렀는지, 어째서 중
턱을 빙 둘러 1,184m의 성을 쌓았는지 짐작이 간다. 계
양산은 한반도 동서남북을 연결하는 한가운데이면서 한
강 하구와 경기만 육상·해상 교통의 교차점이었던 것이
다. 게다가 한강 서부 지역 해안 방어의 전략 거점이다
보니 개항기 땀 중심성衆心城을 쌓기도 했다.
문화재적 가치도 가치이지만, 지난 5월 ‘계양산성 국가사
적 지정’은 무엇보다 인천시와 계양구가 꾸준히 공들여
온 치열한 노력의 결과이다. 문화재 지정을 비롯해 ‘민선
7기 인천시정부’는 출범 이후 ‘해묵은 난제’를 하나씩 해

결하며 황소처럼 뚝뚝뚝 걸어왔다.
‘인천愛뜰’ 조성은 민선 7기 철학의 단면이다. 견고한 철
문과 두꺼운 담벼락이 사라지고 콘크리트 바닥이 푸른
잔디 광장으로 바뀌며 인천시청은 시민들이 24시간 여가
를 즐기는 행복한 공간으로 변모했다. 13년 동안 멈춰 있
던 월미바다열차가 달리기 시작했고 20년간 꽉 막혀 있
던 배다리관통도로가 열렸으며 부평 미군부대 땅이 80년
만에 시민 품에 안겼다. 장기미집행공원 확충, 청라시티
타워 착수, 시내버스준공영제 개선, 해양경찰청 환원, 수
소연료전지발전소 사업 허가 등 민선 7기는 2년이란 짧
은 기간, 수십 년간 덮어둔 채 누구도 들추기 꺼리던 난
제를 차근차근 풀어냈다. 시작도 과정도 결코 순탄치 않
았지만 망설이지 않았다. 해야 할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
럼에도 혼자서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법. 지난 2년의
성과는 무엇보다 시를 믿고 ‘살고 싶은 도시 인천’을 ‘함
께 만들어진’ 300만 인천 시민 시장들의 응원과 주인 의
식이 큰 힘으로 작용했다.
민선 7기는 지금 코로나19로부터 시민의 삶과 건강을 지
키기 위해 혼신의 힘을 쏟아 붓고 있다. 그러면서도 수도
권 매립지 종료와 친환경적 자원 순환으로의 대전환을
비롯한 현안 해결과 함께 ‘기본이 튼튼한 도시, 미래를
준비하는 견고한 도시’를 향한 마라톤을 위해 신발 끈을
단단히 조여 매는 중이다. 진초록 나뭇잎들이 살찌는 7월
의 아침, 인천에 서광을 비추며 계양산성 성벽 위로 태양
이 떠오른다.



‘백마’는 달리고 싶다

백마극장은 1950년대 탄생해 1980년대까지 호황을 누렸습니다.

부평공단 근로자들의 애환을 달래주던 백마극장에선
언제나 코를 훌쩍이고 킁킁대는 소리와
‘아이스끼끼 사려’ ‘오징어 땅콩 있어요’ 외침이 앙상블을 이루었습니다.

산곡동 재개발 계획에 따라 백마극장은 곧 헐리게 됩니다.
백마극장의 멋진 영화映畵 같았던 옛 영화榮華가 그립니다.

글·사진 김진국 본지 총괄편집국장